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1. 오프닝

은행내부와 비슷한 실내공간.

접수부의 '김리나' 라는 명찰을 단 예쁘장한 여자가 앉아 있다.

번호표를 그녀 앞으로 내미는 유선동.

번호표엔 199번, 자살대기자 99명, 순서를 기다려주십시오. 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떠오르는 타이틀

<살자주식회사>

번호표를 받은 김리나는 유선동을 보고 활짝 웃으며

김리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점프. (다른 공간)

온통 주위가 하얀 색으로 둘러싸인 실내공간.

최태호와 유선동 한 가운데에 놓인 하얀 색 책상에 서로 마주 앉아 있다.

최태호 왜 자살하려고 하세요?

점프. (또 다른 공간)

김리나와 유선동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다.

김리나 왜 자살하려고 해요?

점프. (또 다른 공간)

다시 하얀색 실내 공간 속에 마주앉은 최태호와 유선동.

최태호 자살... 하고 싶으세요?

2. 선동의 아파트 옥상

유선동 그래!! 자살하고 싶어!! 자살하고 싶다고!!

번들번들 거리는 검정구두를 신은 유선동.
아파트 옥상 난간에 올라서 난동을 피우는 중이다.
그의 얼굴에 맺혀있던 땀이 목선을 타고 등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다리는 심각하게 후들후들 떨린다.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서류가방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와 동시에 가방이 열려 잡지, 구인 광고지 등등
쓸모없는 내용물이 바람에 날린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선동은 은테안경을 낀 선해 보이는 인상.
입에 문 담배는 필터까지 타들어간다.
순간 입술을 데였는지 제 팔에 놀라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트린다.
아래로 아찔하게 떨어지는 담배. 눈을 질끈 감는다.
선동은 난간에 쭈그려 앉아 흐느낀다.

선동 흐흐흑... 흑흑... 죽어. 그래. 시팔... 죽는다고!!

40대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마치 갓난아기가 영영 소리 내어 울 듯 그렇게 운다.

선동 흐흐흑... 흐어어엉!! 어어엉!! 엉엉엉!!

시간경과.

옥상 난간에 대롱대롱 매달린 선동. 난간을 붙잡은 양손은 점점 미끄러진다.
선동 절박한 목소리로,

선동 살려주세요!

다행히 난간 위로 간신히 올라온 선동 옥상 위로 그대로 엎어진다.
살았다는 기쁨의 얼굴도 잠시 절규하는 얼굴로 바뀐다.

선동 자살할거야! (벌떡 일어나 아파트 아래에 대고 괴성을 지르며) 자살
할 거라고! 다들 듣고 있어? 크웨웁! 나 말리지 마! 자살하고 말테야!

3. 경찰서 내부, 저녁

동네 양아치들로 시끄러운 여느 경찰서의 내부에 선동과 박순경이 마주앉아 있다.

박순경 (컴퓨터로 조서를 작성하며) 왜 그러셨어요?
유선동
박순경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

선동 대답하지 못한다.

박순경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는 민원이 수 십 건이나 접수 됐어요. 아니 혼자 사세요?
유선동 ... 죄송합니다.
박순경 죄송한 거 알만큼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그것도 옥상에서... 인근 소란죄라고 아세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유선동 후... 후후...

난데없이 선동 흐느끼기 시작하자 일순 말을 멈추는 박순경.

유선동 흐흐후... 흐흐후...

난감해하는 박순경.

한편, 선동과 박순경 건너편 책상에 앉은 최태호 경찰.
그는 매서운 인상의 소유자인데 코 밑에 커다란 점이 박혀 있어 한편으론 우스꽝스러운 얼굴이기도 하다.
최태호 경찰과 마주앉은 대머리 남자.

대머리 신경 써주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태호 (정중한 말투로) 수고는 무슨 수고 입니까. 당연한 일인데요 뭘.
대머리 (몰래 태호에게 봉투를 찢어주며) 아닙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태호 (눈치를 살피다가 재빨리 돈 봉투를 슬쩍 받으며) 아이참~ 당연한 일이라도 그러시네요. 허허허...
대머리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머리 남자 기분 좋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한다.
그 사이 돈 봉투 안을 슬쩍 들여다본 태호는
뒤돌아선 대머리를 향해 한 마디 던진다.

최태호 정말 가려고?

멀뚱멀뚱한 얼굴로 최태호를 쳐다보는 대머리 남자.

잠시 후-

휘바람을 불며 자리에 앉은 태호.

그의 안주머니에 두둑해진 돈 봉투가 살며시 보인다.

이윽고 근처에서 들리는 선동의 목소리.

유선동 전... 전 정말 죽을 용기조차 없는 바보같은 놈입니다.

선동의 말에 반사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최태호.

박순경 자꾸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회사에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충동적인 결심을 하면 대한민국에 살아남는 가장은 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 죽을 용기로 사셔야죠. 사랑하는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선동 (고개를 푹 숙이며) 휴... 휴...

그 사이 최태호 자리에서 일어나 박순경과 선동의 쪽으로 자연스레 다가온다.

최태호 저기 박순경!!

박순경 예?

최태호 잠깐 반장님이 부르던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박순경. 최태호가 그를 대신해 자리에 앉는다.

태호 잠깐 음흉한 미소를 띠며 선동을 쳐다본다.

태호 (태연히) 음 어디보자... 성함이 유선동씨?

4. 경찰서 복도

선동 네?

태호 경찰서 복도 구석진 곳에 놓인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선동에게 건넨다.

태호 산다는 게 참 힘들죠?

선동 아~ 네...

태호 그래서 지금도 죽고 싶어요?

선동 네에?
태호 아직도 죽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냐고요.
선동 아니...
태호 죽고 싶죠? 그렇죠?

순간 태호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선동.

태호 그 마음 저 이해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아지기는 커녕 상황은 오히려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선동 예...
태호 (갑자기 주위를 두리번 하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자살할 수 있게 도와드릴까요?
선동 네에?
태호 도와드리겠다고요. 선생님의 자살을...

천진난만하게 눈을 깜빡거리는 태호.

할 말을 잃은 선동.

잠시 정적.

이내 경찰서 복도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검정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자신을 포박한 경찰에게 마구 반항하는 모습이 보인다.

검정남자 아니 씨발!! 뭐 이딴 게 다 경찰이야!! 그래 어디 한번 죽여봐!! 죽여보라고!!

선동 가만히 검정남자를 쳐다본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 태호를 본다.

씩 웃고 있는 태호. 지갑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선동에게 내민다.

태호 여기~

태호가 내미는 명함을 받는 선동.

명함엔 '살자주식회사' 라는 글귀가 큼직하고 선명하게 박혀있다.

맨 아래엔 인터넷 사이트 주소도 박혀있다.

선동 살자... 주식회사?
태호 위장이죠.
선동 네?

태호 살자를 거꾸로 읽어보세요.
선동 자살...
태호 주식회사.
선동
태호 죽는 순간의 공포 때문에 자살을 망설이는 이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더 살아봤자 고통이 심해질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공포 때문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기가 바로 그 죽음의 공포를 없애주는 곳인데 쥐도 새도 모르게 아주 편안하게 자살을 도와준대요. 저도 소개받은 곳인데 조만간 가보려고요.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선동
태호 드는 비용은 일체 없고 장례비용까지 무료로 오히려 돈까지 준다고 하니깐 아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겁니다. 바로 지금이 찬스다 이거죠.

선동 가만히 시선을 돌려 태호의 머리 뒤에 붙은 경찰 포스터를 쳐다본다.
‘범죄신고는 112’

5. 선동의 아파트 입구 / 엘리베이터 앞, 밤

술에 취했는지 빨간 얼굴로 비틀비틀 아파트 입구 안으로 들어오는 선동.
때마침 경비실 안에서 땀을 뻘뻘 흘려가며
아령으로 운동하던 경비가 밖으로 나온다.

경비 (활짝 웃으며) 어이구~ 유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늦으셨네요. 약주 한 잔 하셨나봐요.
선동 예... 안녕하세요.

비틀거리다가 순간 넘어지려고 하자 재빨리 선동을 붙잡아주는 경비원.

경비 어이구! 어이구! 조심하셔야죠.

경비가 친절히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눌러준다.

선동 감사합니다.
경비 아니 뭘요.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닫히고 경비는 손을 이마에 붙이며 선동에게 거수경례를 한다.

경비 수고!

선동 (어떨결에 경비를 따라 거수경례하며) 수고!!

어리버리한 선동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경비. 젊고 우람한 근육형.

6. 선동의 집 거실, 밤

선동 현관문을 열자 안에서 매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아내 혜숙 술에 취한 듯 밧그레한 얼굴로,

혜숙 (선동의 팔짱을 끼며) 자기야 왜 이제 왔어. 빨리 들어와.

선동, 혜숙에게 이끌려 거실로 들어서자

한창 술판을 벌이는 혜숙의 남녀손님들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그들을 환영한다.

그런 분위기에 머쓱해하는 선동.

시간경과.

거나게 취한 검은 옷을 입은 남자손님이

강제로 뒤에서 선동을 껴안아 일으켜 세우려한다.

선동 싫다고 손을 흔들지만 힘에 밀려 결국 남녀손님들 앞에 선다.

검은손님 (다른 손님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노래!! 노래!! 노래!!

난감해하는 선동을 모습을 보고 더 즐거워서 힘차게 딱딱 박수치는 남녀손님들.

유선동 죄송합니다.

손님들 (일제히) 우~ 우~ 우~

유선동 제가 심각한 음치에다 박치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되는 거절에 괜히 어색해진 분위기.

검은손님 에이~ 노래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다 같이 즐거워하자고 하는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자꾸 빼지 마시고 남자답게 한 번 해보세

요. 자자자 다시 박수!!

다시 박수치는 손님들.

선동은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혜숙과 눈이 마주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 보다 노래실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검은손님은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으려고 안간힘을 쓴다.

다른 남녀손님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검은손님이 먼저 웃음을 터트리자 동시에 터지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얼굴이 붉어지는 선동.

크게 들리던 손님들의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마술처럼 눈 앞에서 손님들이 하나둘씩 사라진다.

어느새 모두 사라진 손님들.

지저분한 거실엔 선동만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다.

이윽고 쿵하는 대문소리가 들리더니 혜숙이가 거실로 들어온다.

7. 선동의 집 안방, 밤

붉은 색의 야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누운 혜숙. 바로 옆에 누운 선동.

갑자기 획 잠옷을 벗어던지는 선동. 혜숙도 속옷을 획 벗어 던진다.

선동은 이불 속에 손을 넣어 혜숙의 가슴을 만지작거리고

혜숙도 이불 속에 손을 넣어 선동의 거기를 만지작거린다.

그러나 선동의 거기가 발기가 안 된다.

이불 속에서 잠깐 발기 되었다가 가라앉기는 반복한다.

얼굴에 땀을 한가득 흘리며 힘들어하는 선동.

결국 선동의 거기에서 손을 떼어내며 한숨을 내쉬는 혜숙.

등을 돌려 눕는다.

그러나 선동은 아직 포기 하지 않고

등 돌린 혜숙의 뒤에서 삼입하려고 무진장 애쓴다.

이불 속에 들어간 혜숙. 오랄을 해주는 지 선동의 거기 부근에서 이불이 들썩인다.

한껏 흥분한 선동의 얼굴.

선동 아아... 셋다!! 셋어!!

재빨리 삼입하는 선동.

피스톤 운동을 시작한다.

그러나 불과 3초 만에 사정해버리고 마는 선동.

선동 아아아!!

절정의 표정인 선동. 이와 대조적으로 무표정한 아내의 얼굴.

잠시 흐르는 짜늘한 정적.

이윽고 혜숙은 깊이 잠들어 있는데 선동은 눈을 뜨고 멍하니 천정을 바라본다.

안방 벽엔 선동과 혜숙의 그간 결혼생활이 담긴 여러 사진들이 걸려있다.

그런데 온통 두 사람의 모습뿐이다. 자식이 없다.

선동 잠이 오지 않는지 침대에서 일어난다.

8. 선동의 집 화장실

소변을 보는 선동.

그런데 오줌이 자꾸 변기 가로 튈다.

불일을 다 본 후 화장실 변기통에 고개 숙인 채 앉는다.

잠시 후-

옷 주머니를 밖으로 빼내서 세탁기에 집어넣는 선동.

그러다 낮에 최태호 경찰에서 받는 '자살주식회사' 명함을 발견한다.

잠시 그것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아무렇게나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9. 선동의 집 부엌 / 거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토스트를 만드는 중인 선동.

어느새 그의 뒤로 다가온 아내 혜숙 그의 등을 살며시 껴안는다.

선동 잠시 몸을 돌려 아내와 모닝키스를 나눈다.

선동 (입술을 맞댄 상태에서 소곤거리며) 거의 끝났으니깐 잠시만 기다려.

고개를 끄덕이는 아내.

바로 그때 난데없이 아내의 등 뒤로 손을 뻗더니 몰래 식칼을 집어 드는 선동.

식칼을 그대로 내리찍는다.

아내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면 단칼에 바퀴벌레의 목이 잘린 것이 보인다.

머리와 몸통이 두 동강 난 바퀴벌레는 쓰레기통에 버려진다.

다시 한 번 아내에게 살며시 키스하는 선동.

거실 소파에 앉은 아내는 TV를 보는 중.
자살에 관련된 보도가 한창이다.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5분에 한명씩 자살을 시도하며 45분에 한명씩 자살로 생명을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살의 원인은 실업, 빈곤, 배우자와의 사별,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등 다양한 것으로...

그 사이 토스트를 아내에게 가져오는 선동.
자신의 것도 가져오기 위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문득 쓰레기통을 보는데,
금방 버린 바퀴벌레의 머리만 있을 뿐 몸통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선동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내에게 묻는다.

선동 여보 이상해. 좀 전에 죽인 바퀴벌레 몸통이 사라졌어.

토스트를 막 먹고 있던 혜숙은 갑자기 불쾌한 표정이 된다.
그녀의 입 안에서 마치 바퀴벌레라도 씹히는 듯 한 소리가 난다.
실제 바퀴벌레의 몸통은 살아서 싱크대 바닥을 기어가는 중이다.
머리가 없이 말이다.

10. 차 안

선동 조수석에 앉아 있고 혜숙이가 운전을 한다.
두 사람의 얼굴이 양쪽 사이드미러에 계속 교차되며 대화한다.

선동 당신 일찍 들어올 거야?
혜숙 우리 결혼 9주년 때문에? 어디서 할 거야?
선동 글썸...
혜숙 각자 생각해보고 전화하자.
선동 그래.
혜숙 일찍 들어와. 나도 일찍 들어올게.
선동 응.

어느새 선동의 회사 앞에 도착.
선동은 차에서 내리려 한다.

혜숙 여보, 사랑해.
선동 자기야. 나도...

선동 이미 출발한 아내의 차량을 한참동안이나 바라본다.
회사 안으로 몰려 들어가는 다른 회사원들과
가만히 선 선동의 모습이 확연히 구분된다.
이내 다른 회사원들과 정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선동.

11. 선동의 아파트 입구 / 엘리베이터 앞

아파트 입구 안으로 들어오는 선동. 엘리베이터 앞에 선다.
선동 문이 열린 경비실을 의식하는 듯 고개를 쭈뼛 내밀어 살펴본다.
다행히 TV만 켜져 있을 뿐 경비원 없다.
↓아래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의 방향표시
예쁘게 포장된 네모난 상자를 든 선동.
문득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파트 근처에서 꺾은 듯한 흰색 깃털이 달린 민들레
몇 송이를 낀 꼬마숙녀(여자아이 5세)가 바로 옆에 서 있다.
꼬마숙녀 민들레씨를 입으로 후후 불며 장난을 친다.
공중에 날리는 민들레씨를 보며 해맑게 웃는 꼬마숙녀.
선동 그 꼬마숙녀가 너무 귀여운지 살짝 손을 흔들며,

선동 안녕~

꼬마숙녀는 선동에게 민들레씨를 후후 부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한다.
민들레씨가 공중에 훑날려 선동의 옷에 붙는다.
선동 화내지 않고 꼬마숙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다.
↓아래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의 방향표시
땡땡 엘리베이터 도착 소리와 함께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선동의 얼굴빛이 창백해진다.

12. 선동의 집 안방

창백해진 선동의 얼굴.
안방에 아내 혜숙이가 보인다.
선동 혜숙을 보고 놀란다. 혜숙 그를 보며 깜짝 놀란다.

혜숙 당... 당신... 여기 왜?
선동 으응... 그게 (예쁘게 포장된 네모난 상자를 내밀며) 여기 당신 결혼 기념일 선물...
혜숙
선동 근데 그러는 당신은 여기 왜?
혜숙 그... 그게...

바로 그때 안방에 붙은 화장실에서 물내려가는 소리가 들린다.

순간 선동의 고개가 획 돌아간다.

화장실의 문고리가 조심스레 돌아가더니 누군가가 조심조심 걸어 나온다.

아파트 경비원이다.

묘한 정적. 선동, 경비원 그리고 혜숙 세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보니 뭔가 이상하다.

안방에 옆으로 넘어진 크리넥스, 이상하게 어지럽혀진 이불가지.

경비 (당혹하지만 애써 자연스런 얼굴로) 저... 저기 사모님? 다 뚫어드렸는데요?
선동 뭘... 뚫어?
혜숙 (경비에게 눈치를 주며) 아... 아니 갑자기 변기에 물이 막히는 바람에 경비원 아저씨 좀 불렀지.
경비 네네.
선동 (그제야 알겠다는 듯) 아~
혜숙 힘쓰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경비 아... 아닙니다. 고생은 뭘... 또 언제든지 불러만 주십시오.
선동 저기...
경비 (깜짝 놀라) 넵?
선동 감사합니다. 뚫어주셔서!!
경비 아닙니다. 유선생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럼 전 이만.

경비는 안방에서 나가려고 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경비가 막 선동을 스치려는 순간,

선동 저기!!
경비 (조금 전보다 더 깜짝 놀라며) 네넵?

경비와 혜숙 잔뜩 긴장한 얼굴.

선동 (손가락으로 자신의 거기를 가리키며) 여기~
경비 (침 꼴깍하는 소리)
선동 남대문 열리셨는데요.
경비 (지퍼를 올리며) 어이쿠~ 제가 이런 실수를... 그럼 이만.

신속히 안방에서 나가기 위해 안방 문을 열려하는 경비.
그런데 이번엔 선동 아내 혜숙에게!!

선동 (뒤 발견하더니) 당신~
혜숙 (깜짝 놀라며) 으응?
선동 감기야? 저기 휴지...

경비 뜨끔하여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본다.
선동이 눈빛으로 가리킨 곳은 바닥에 떨어진 휴지뭉치.
혜숙 당황한 모습이 역력하지만,

혜숙 으응. 으스스한 게. 콜록!! 콜록!!

혜숙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 휴지뭉치를 들어 코를 킁킁 푼다.
이 장면을 보며 화들짝 놀라는 경비.
다른 게 아니라 휴지뭉치에 콘돔이 딸려 올라온 것!!
콘돔 속엔 축 늘어진 흰 액체가 보인다.
선동 갑자기 얼굴께 근육이 부들부들 떨린다. 눈에서 눈물이 그렇그렇 거린다.
고개를 돌려 경비를 쳐다본다.
곧 폭발할 것만 같은 선동의 표정을 보며 겁을 먹은 경비. 그리고 혜숙.

혜숙 여... 여보...?
경비 (애써 웃음을 지으려하며) 유... 유선생님...?

선동은 괴성과 울음이 동시에 터트리면서 경비에게 달려든다.

선동 으아아아아악!!

결혼기념일 선물상자로 경비를 마구 때리는 선동.

경비 아악!! 미안합니다. 유선생님!! 아아악!! 미안... 아아아악!!
선동 (울부짖으며) 으아아아아악!!

결혼기념일 선물상자의 포장이 뜯어지고 상자가 찌그러지고 찢어진다.
그러자 선물상자에 든 브래지어와 팬티가 공중으로 날아가기도 한다.
아내에게 선물할 팬티가 경비의 얼굴 위로 떨어지자
이에 선동은 더욱 격분하여 이번엔 선물상자에 든 화장품을 꺼내더니
그걸로 경비를 마구 구타한다.
결국 화장품은 깨져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날리고
화장품 내용물(하얀색 기초로션)이 선동의 얼굴에 튀기기까지 한다.
그건(하얀색 기초로션) 마치 경비의 정액이 선동의 얼굴에 튀는 것을
연상케 하는데 이에 선동은 더욱 흥분하는 듯 하다.
결국 선동의 폭력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던 경비가,

경비 그... 그만!! 그만!!
선동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경비 경고!! 경고해요!! 그만!! 그만!!

그러나 결국 선동은 그칠 줄 모르고 혜숙은 이 상황을 어쩔 줄 몰라 한다.
결국 경비마저 이성을 잃어버리고 선동을 향해 주먹을 내지른다.
선동 경비의 단 한방의 주먹을 맞고 그대로 뒤로 나자빠지면서
안방에 있던 커다란 화장거울이 산산조각 깨어진다.
경비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벌떡 일어나 쓰러진 선동을 사정없이 발로 짓밟는다.

경비 (얼굴에 피를 질질 흘리며) 이런 씨발 불능자지야!! 그만 하라고 했
잖아. 자지는 새끼발가락만 한데다 조루라며!! 이런 좃만한!!

바닥에 산산조각 깨어진 화장거울 파편들.
그 거울 파편들에 비친 혜숙의 얼굴과 선동의 얼굴.
경비에게 마구 짓밟히는 선동은 화장거울 파편을 통해서 혜숙의 얼굴을 바라본다.
선동 세상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표정이다.
정말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 혜숙의 표정.
정말 당장이라도 혜숙을 죽이고 싶은 선동의 표정 클로즈 업.

시간경과-

정말 혜숙을 죽이고 싶은 선동의 표정 클로즈 업 된 상태에서 카메라 뒤로 빠지면
이미 안방에서 브래지어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한 아내 혜숙이가 보인다.
(선동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줄 바로 그 브래지어)
멍한 표정으로 혜숙을 바라보는 선동.

안방에는 꽤 많은 경찰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중이다.
그 중 어느 경찰이 선동에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넨다.

경찰 강혜숙씨 몸에서 나온 소지품입니다.

경찰이 건넨 아내의 소지품을 받아드는 선동.
허망한 표정으로 아내의 소지품을 하나씩 확인해본다.
결혼반지. 귀걸이. 자동차 열쇠. 동전. 지갑 따위들.
선동 지갑을 펼치자 혜숙과 선동의 다정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보인다.
파악하기 힘든 선동의 표정. 혜숙의 지갑 속엔 카드와 여러 명함들도 있다.
그 중 선동을 놀라게 하는 명함 하나. '살자주식회사' 명함이다.
순간 놀란 표정의 선동. 두리번두리번 경찰들을 의식한다.
그리고 다시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본다.
'살자주식회사' (자살주식회사) 명함이 틀림없다.

13. 선동의 집 부엌, 밤

불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거실.
어디선가 그릇이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거실 벽엔 이미 깨진 선동과 혜숙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다시 걸려있다.
그릇이 달가닥하는 소리 계속 들리고...
소리가 나는 부엌 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 형체는 뚜렷하지 않지만
선동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설거지를 하던 선동 순간 싱크대를 양팔로 붙잡고 서서히 아래로 무너져 내린다.
처량하고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 매우 작은 소리이다.
이내 바닥에 덩석 주저앉는 선동.
선동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아보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만 간다.

14. 선동의 집 거실, 오후

집 안 가득히 울려 퍼지는 남녀의 신음소리.
깨진 결혼식 액자사진, 각종 세금고지서,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 등등
매우 지저분한 집안 꼴.
9권의 목 잘린 바퀴벌레가 뒤뚱뒤뚱 거실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간다.
여전히 남녀의 신음소리는 그칠 줄 모르고...
선동 소파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며 성인포르노DVD를 보는 중이다.

TV위에 산더미처럼 올려져있는 성인포르노DVD.

다양하고 재미있는 여러 제목.

포르노의 남자주인공은 여자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다.

눈빛이 흐리멍덩한 선동. 아직 사정하지 않았는데 따르릉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유선동 (힘없이 전화를 받으며) 여...여보세요.

여주인 유선동씨 댁 맞죠?

유선동 (자위행위를 멈추지 않고) 네...에? 그런데요?

여주인 유선동씨 지금 집에 계신가요?

유선동 접니다.

여주인 야! 이런 씨... 내 입에서 욕 나오게 할래? 여기 파워DVD가게거든? 아니 성인물 빌려 간 거 대체 언제 가져 올 거야! 연체금액이 얼마인지나 알아?

유선동 (곧 사정할 듯) 저기 제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주인 뭐라고?

유선동 (사정한 듯) 아아아-!

인서트.

파워성인DVD가게 카운터에 앉은 여주인.

수화기에서 난데없는 신음소리에 어이없는 표정.

여주인 앞에는 성인포르노DVD를 빌리려고 하는 노인이 서 있다.

여주인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노인.

시간경과.

TV가 켜진 거실.

해외토픽 코너. 자살에 관한 보도를 다루는 중.

아나운서2 지구촌 사람들은 전쟁이나 살인보다 자살 때문에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100만 명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이는 40초당 1명꼴인 셈이라고 세계보건기구,WTO가 밝혔...

선동 다른 채널을 돌리자 또 자살에 관한 보도가 흘러나온다.

명하게 TV를 바라보는 선동.

잠시 후-

선동 소파에 앉아 2개의 자살주식회사 명함을 바라본다.

구겨진 명함(선동이 일전에 버린)과 뺏뺏한 명함(아내의 지갑 속에 있던)

컴퓨터 앞에 앉은 선동.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중이다.
 컴퓨터 책상 위엔 2개의 자살주식회사 명함이 놓여있다.
 선동 자살신청게시판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따위의 자살신청서를 타이핑하는 중.
 이내 등록하기를 클릭하려고 마우스를 이동시킨다.
 하지만 등록하기 앞에서 선뜻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손가락.
 잠시 망설이다가 취소버튼을 누르려는데 취소가 이리저리 도망친다.
 급기야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등록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뜬다.
 선동 깜짝 놀라 자살신청서를 찾아 삭제시킨다.
 그런데 삭제하자마자 곧바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린다.
 순간 놀라는 선동. 핸드폰을 조심스레 집어 든다.

유선동 여... 보세요?
 여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고객과 정성을 다하는 자살주식회사입니다.
 유선동 (깜짝 놀라며) 네에?

수화기에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배경음으로 깔려나온다.

여목소리 고객님!! 조금 전에 인터넷 자살게시판에 자살신청서 올리셨죠?
 유선동 아니 그게 말이죠...
 여목소리 망설이고 계시네요. 고객님. 망설임이 고통을 덜어주던가요? 아니면 그 반대던가요? 이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비용은 무료라서 전혀 문제없으세요. 고객님. 오히려 저희 쪽에서 소정의 금액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유선동 죽을 때 많이 아프진 않나요?
 여목소리 저희는 고통이 없어요. 고객님. 바로 즉사예요.
 유선동
 여목소리 정각에 셔틀버스 그쪽을 거쳐 갈 예정인데 한 번 보내드릴게요. 결정이 서면 나오면 됩니다. 물론 안 나와도 상관없고요. 현명한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겠죠.
 여목소리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유선동 아... 아니요.

'지금 자살상담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화마감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여성 기계음이 별도로 들린다.

여목소리 저는 상담원 김리나였습니다. 언제나 편안해 지길 바라겠습니다.

끊기는 전화.
선동의 표정.

선동 (나지막한 목소리로, 혼잣말로) 언제나... 편안해 질 수... 있다...?

15. 선동의 아파트 입구

선동을 기다리는 자살주식회사의 셔틀버스 운전기사(천기사).
살자주식회사 스티커로 위장된 셔틀버스.
선동 자살주식회사 셔틀버스가 보이는 곳으로 걸어가려는가 싶더니
그냥 모른 척 지나쳐 간다.
그때 운전기사가 무심코 선동의 이름을 부르고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보면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선동.

천기사 유선동씨 되십니까!!
유선동 (괜히 뜨끔해서 뒤돌아보고선) 전... 아닌데요.
천기사 그럼 누구?
유선동 유... 선동입니다.
천기사 ...? 맞구먼. 어서 타시오!
유선동 네.
천기사 (환하게 웃으며) 자자, 편안한 길로 인도합니다.

결국 셔틀버스에 오르는 선동.

16. 자살주식회사 셔틀버스 안, 오전

셔틀버스 앞자리엔 웬 40대 남자 두 명이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선동은 모르고 그들 바로 옆자리에 앉으려다가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앉는다.
셔틀버스엔 동성애자들 외에 화장이 지워진 채 평평 울고 있는 여자,
배가 아픈지 고통스러워하는 노인 등등이 타고 있다.
선동을 포함 다들 서로 멀리 떨어져 앉아 있다.
다들 제 각각 좋지 못한 모습들인데 운전기사만 싱글벙글 밝은 표정이다.
천기사 빨대를 쥔 참이슬 팩을 쪽쪽 빨며,

천기사 자자, 추울발!!

천기사가 시동을 걸자 덜덜덜 내부가 심하게 떨리는 셔틀버스.
급출발 했다가 한번 시동이 꺼진 후 다시 출발한다.
불안해하는 선동.

도로를 중횡무진 질주하는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폭주족들.
그런데 이들보다 더 미치광이처럼 계기판 속력을 내는 자살주식회사 셔틀버스.
천기사는 위험천만하게 중앙선을 넘나들며 간단하게 그들을 추월한다.
난데없는 난폭한 운전엔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이 된 선동.
고개를 돌려 천기사에게,

유선동 저... 저기 기사아저씨...?
천기사 (참이슬 맥을 빨대로 마시며) 왜 그러슈? (또 핸들을 확 꺾는다)
유선동 여기가... 자살주식회사는 아니죠?
천기사 그게 무슨 말이지?
유선동 여긴 셔틀버스 아닌가요?
천기사 셔틀 맞는데... 지금 자살주식회사로 가는 중이지.
유선동 아니. 속력이 너무...
천기사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웃으며) 아~ 왜? 겁나?
유선동 아니~ 그게 아니라 사고라도 날까봐.
천기사 꺽꺽... 뭐 상관있어? 어차피 죽을 거...
유선동 그렇네요.
천기사 또 언제 죽을 지 모르는 게 인생 아니겠어? 꺽꺽꺽!!

선동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바로 한다.
그리고 셔틀버스에 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본다.
셔틀버스 여전히 중앙선을 넘나들고 난폭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선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이다.
선동도 애써 진정하려 한다.
이제 셔틀버스는 한강다리를 건너는 중.

천기사 다들 오른편으로 시원해 보이는 한강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저희 자살주식회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코스랍니다.

고개를 돌려 한강을 쳐다보는 선동과 사람들.

이윽고 목적지에 도착했는지 끼익하며 급정거하는 셔틀버스.
차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몸이 앞으로 휘청거린다.
버스에서 내린 선동과 사람들은 고급스러움과
하늘에 구름이 닿을 정도만큼 높다란 빌딩건물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어느새 내린 천기사도 사람들과 함께 빌딩을 올라다보며,

천기사 (환하게 웃는 얼굴로) 천국이 보이는 감?

17. 고급빌딩 내부, 오전

빌딩 내부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빌딩 내부 역시 매우 고급스럽다.
천기사와 선동 외 사람들도 바쁘게 걸음을 옮긴다.
이리저리 눈이 돌아가는 선동.

선동 외 사람들 미리 대기해 있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향한다.
맨 위층에 가까워지자 정말 거짓말처럼 뭉게구름이 바로 아래에 보인다.
명동 엘리베이터 도착하고 선동 외 사람들은 천기사를 따라서 내린다.
선동의 팀이 내리자마자 서너 명의 다른 남녀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어둡다.
천기사를 따라 바로 코너를 돌아 왼쪽 벽면에 '살자주식회사' 라고 위장된
실내간판이 붙어져 있는 게 보인다.
바로 정면으로 자살주식회사로 들어가는 문이 보인다.
선동과 사람들은 바닥에 깔린 고급스런 레드카펫을 밟으며 걸어간다.
천기사가 카드를 긁자 스크르 유리문이 열리고 선동 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간다.

18. 자살주식회사 접수부 / 대기실, 오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마치 은행내부와 비슷해 보인다.
정면으론 접수창구가 여럿 있고 벽면엔 자살을 권장하는 여러 포스터가 붙어 있으
며 자살 잡지들과 TV엔 계속 자살에 관련된 내용들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대형디지털전광판엔 실시간으로 자살고객들에 관한 정보가 올라온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라운 점은 상상외로 엄청나게 많은 남녀사람들로
내부가 북적댄다는 점이다. 자살대기실 좌석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다.
그들은 다들 한결같이 어두운 표정이며 나이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해보인다.
그리고 직업 역시 교복 입은 학생, 직장인, 택시기사 등등 다양해보인다.
오른편으론 커다랗고 기다란 창문이 반으로 쪼개진 형상인데
도심이 흰히 내려다보일 정도로 절경이다.

선동 잠시 내부를 두리번거리다가 앞 사람들을 따라 번호표를 뽑는다.
번호표엔 199번. 자살대기자 99명. 순서를 기다려주십시오. 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천기사 접수부에 앉은 김리나에게 가까이 다가가 야릇한 웃음을 짓는다.

천기사 팬티 입었어?
김리나 (짜려보며)
천기사 안 입었구나!! 꺄꺄꺄...
김리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땡땡하는 소리와 함께 자살고객을 맞이하는 리나.
선동은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며 수많은 자살고객들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다 아주 어린 남자꼬마아이를 보더니 흠칫 놀래한다.
남자꼬마아이의 손에는 여러 개의 학원 가방이 들려져 있다.

시간경과.
땡땡 하며 199번 선동의 번호가 뜨고 선동은 접수부 쪽으로 걸어간다.
접수부엔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예쁘장한 여자가 유니폼을 입고 앉아 있다.
유니폼 좌측 상단에 '김리나' 라는 명찰이 붙어 있는 게 보인다.
리나 선동을 보며 시원스럽게 웃는다.

김리나 안녕하세요? 고객님!! 어떻게 여길 오시게 되었습니까?

리나는 유니폼 속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데
윗단추가 풀어져 있어 브래지어가 살짝 보인다.
선동은 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자꾸 그쪽으로 눈이 돌아간다.

유선동 그게... (주머니를 뒤적여 자살주식회사 명함을 찾아 내밀며) 여기..
김리나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며)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유선동 (브래지어를 쳐다보다가 깜짝 놀라며) 유!! 유선동입니다.
김리나 아~ 유선동 고객님!! 인터넷 자살게시판에 신청서 올리신 분 맞으
시죠?
유선동 네...
김리나 접수됐습니다. 고객님!! 요 옆 9번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선동 (브래지어에 빠져있는 중)
김리나 (웃으며) 고객님!!
유선동 네에? 네에.
김리나 9번방으로 들어가 주시겠어요?

유선동 네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뒤돌아서서 선동.

선동은 접수부 옆 통로가 열리자 그곳을 들어간다.

통로의 천정과 벽 그리고 바닥의 색은 모두 백색이며 방의 개수 또한 많다.

선동은 그 중 9번 방으로 들어간다.

19. 자살주식회사 9번 방

쿵하며 문이 닫히자 한동안 내부가 웅웅 울린다.

방 안 공간은 꽤 넓은 편인데 역시 천장, 벽, 바닥이 모두 백색으로 아주 깔끔하다.

창이 있는 곳엔 모두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

마치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여러 개로 나누는 듯 하다.

방 안의 장식물이라곤 벽에 걸린 커다란 바퀴벌레 그림 하나와

한 가운데에 하얀색 책상 하나와

LCD 컴퓨터 2대, 의자 2개가 전부. 매우 공허한 공간.

선동 선뜻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 있는데

이내 그의 등 뒤쪽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다.

??? 왜 서 계십니까?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죠. (먼저 의자에 앉는다)

선동 예...

그제야 선동은 맞은편 빈 의자에 앉는데

그가 누군지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래한다.

누군가는 바로 최태호이기 때문이다!!

태호도 바로 선동을 보고 누군지 알아차리는 표정.

태호 (묘하게 웃으며) 오~ 반갑습니다. 결국은 오셨군요.

선동 (놀란 얼굴로) 당... 당신은...

태호 경찰은 좋은 위장책이죠. 뭐 고의로 거짓말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땐 너무 동정이 가서 자살 외엔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 보였죠.

선동 네에.

태호 (담배곽을 내밀며) 한 대 피실래요?

선동 태호가 내민 담배곽에서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문다.

태호는 자신이 펴고 있던 담배를 빼내더니 선동의 입에 물려진 담배 쪽에 댄다.

선동 담배를 한 모금 빨자 태호의 담배를 통해 불이 붙는다.
그런데 담배를 한 모금 빨자마자 심하게 기침을 내뿜는 선동.

태호 처음이세요?

선동 아... 아뇨. 두 번째입니다.

태호 이젠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담배만큼 끊기 어려운 게
목숨이죠.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
습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편안하게 해 드릴 테니깐요.

태호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끈다.

태호 우선 우리는 고객들이 자살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선 전혀 관심 밖
의 대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고객들의 자살을
편히 도와주는 일뿐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어떻
게... 자살하길 원하십니까?

선동 네에.

태호 저번보다 더 절실해 보이는군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서에
서명해주시겠습니까?

태호가 내민 건 자살계약서.

여러 조항의 계약내용과 동의여부를 묻는 내용.

선동 자살계약서를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대충 훑어보다가 서명란에 사인을 한다.

자살계약서를 되받은 태호.

태호 여길 보세요.

선동 LCD모니터 화면을 보자 '자살메뉴' 라는 붉은색 글귀가 보인다.

태호 거기 보시면서 자살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손바닥 뒤집는 일
보다 더 쉽게 자살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자살도우미들이 배치
되어 있으며 여러 장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엔 여러 자살유형들은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지는 여러 자살유형들>

- 자살주식회사에서 발명한 기계발판을 사용해 한강다리 위에서 떨어트려주기

- 아파트 옥상에서 목매달아 번지점프를 하다
- 목 매 자살할 때 옆에서 의자 차주기
- 주사기로 피 다 뽑아내기 등등...

※ 화면 속의 자살자들은 한결같이 환하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태호 유선동 고객님!!

선동 네에?

태호 고객님의 자살에 필요한 몇 가지 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태호 자신의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태호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양측 시력이 어떻게 되시죠?

선동 (뜬금없는 질문에 의아해하며) 시... 시력이요?

태호 네.

선동 정확한 시력은 저도 잘... 안경을 벗고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니깐...

태호 (말을 자르며) 됐습니다. 평소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선동 글썽요. 가끔씩 머리가 아픈 건 빼곤...

태호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은요?

선동 없습니다. 그땐 회사 일로 항상 바빴으니깐 요. 저기 근데 이런 질문이 제가 자살을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태호 저희 회사에선 자살을 도와주는 대가로 고객들의 장기를 팔아 회사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동 (깜짝 놀라) 장기를 팔아요?

태호 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랑스럽게) 저희 회사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은 업체거든요.

웃는 태호. 얼빠진 표정의 선동.

순간 하얀색 책상 위에 놓인 자살계약서를 쳐다본다.

신체포기각서 란이 보인다.

태호 왜요? 혹시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으세요? 자살이 절실하지 않다면 지금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선동의 표정.

20. 자살주식회사 엘리베이터

자살주식회사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라타는 선동. 표정이 매우 어둡다.
역시나 하얀색의 문계구름이 아래에 보인다.
선동 맨 아래 층의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는 한없이 아래로 하강한다.
그러다 어느새 문계구름이 밑으로 스며들고
엘리베이터는 점점 급격하게 하강하며 물은 점점 차오르며
마침내 맨 아래층에 도달했을 땐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다이다.

21. 스바라시 고급 일식집 내부, 저녁

물고기가 헤엄치는 바다.
카메라 뒤로 빠져보면 바다의 실체는 거대한 수조이다.
선동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내부가 매우 고급스러운 일식집을 이동 중이다.
VIP석으로 들어가 앉은 선동.
이내 그의 앞에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음식 하나가 놓이는데
전체를 흰 천으로 덮고 있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내 남종업원이 흰 천을 획 드러내자 그 정체가 드러난다.
나체 스시이다. (=나체 회) 여성의 몸 위에 초밥이나 회를 올려둔 음식.
남종업원은 선동에게 90도로 정중히 인사를 한 후 방에서 나간다.

남종업원 맛있게 드십시오.

선동의 표정.
나체여성이 입에 물고 있는 젓가락.
선동이 한참을 젓가락을 빼내지도 못하고 있자
나체여성 답답한지 자신이 직접 입에 물고 있던 젓가락을 빼내 선동에게 건네준다.

선동 (젓가락을 받아들며) 고맙습니다.
나체녀 (죽은 사람인 척 천정을 바라보며 대답 없는)
선동 먹어도 될까요?
나체녀 네에.
선동 저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체여 (허공을 바라보며) 죄송하지만, 알바 중에 자꾸 말 하면 안 되거
 든요?
선동 아~ 예... 죄송합니다.

선동 젓가락을 권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회를 집으려고 하자,

나체녀 미스 김... 다들 미스 김이라고 불러요.

선동 아~ 네.

선동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어 미스 김의 하얗고
보드라운 배 위에 오른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꿈틀대는 회를 집어 먹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미스 김의 배에서 꼬르륵하는 소리가 들린다.

선동 (미스 김을 보며) 저녁 안 드셨어요?

미스김

선동 같이 먹을래요? 맛있는데...

미스김

미스 김 계속 대답 없자 하는 수 없이 혼자 회를 먹으려하는 선동.
바로 그때, 미스 김의 뒤늦은 대답!!

미스김 그럼 조금만 주실래요?

순간 젓가락을 멈칫하는 선동.

젓가락으로 회를 집어 나체로 누운 미스 김의 입에다
친절하게 회를 넣어주는 선동.
선동 자신도 회를 먹고 손수 술도 따라 미스 김의 입에 넣어준다.
상 위에 놓인 스바라시 일식집 특별요리 상품권.

22. 자살주식회사 9번 방(회상)

21번의 마지막 컷에서 선행되는 태호의 목소리.

태호 패밀리회원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부인께서도 얼마 전 저희 회사를 이용하신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태호 자살인명목록 책자를 뒤적여 선동의 아내 혜숙의 신상명세를 확인한 상태.

태호 가만가만. 요즘 이벤트 기간이라 우수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서비스가 있거든요?

태호 무언가를 꺼내 선동에게 내민다.

태호가 내민 것은 백화점상품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합이 모두 3장이다.

그 중에는 21원 마지막 컷에 나왔던 스바라시 특별요리 상품권도 보인다.

태호 모두가 저희 자살주식회사와 제휴업체입니다. 스바라시 일식집에서 만 맛 볼 수 있는 최고급 특별요리. 테크닉 뛰어난 초특급 미녀가 선사하는 출장안마서비스 그리고 성인DVD 9개 무료 대여권 모두 3종 세트이죠. 이 상품권만 제시하시면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자살유형은 결정이 되어 가십니까?

선동 (수많은 바퀴벌레가 그려진 영상을 가리키며) 네에. 저기 근데 이건 어떤...?

태호 아~ 그 바퀴벌레요? 그것도 자살유형의 일종입니다.

선동 자살유형이요?

태호 네. 유일하게 사람이 아닌 저희 회사의 마스코드인 바퀴벌레가 자살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혹시 바퀴벌레는 목을 잘라 놓아도 몸통은 몇 일간 생존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선동 (9천의 기억을 더듬으며) 그런 것... 같더군요.

태호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글썄!!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소 놀란 듯한 선동의 표정.

태호 잔뜩 흥분해선 이야기를 계속한다.

태호 바로 이런 바퀴벌레의 놀라운 생명력을 응용한 것으로 우선 알을 뱀 바퀴레를 살짝만 튀긴 후 삼켜서 먹습니다. 그러면 산에 대한 방어력을 미리 갖춘 새끼 바퀴벌레들이 위에서 부화하게 되거든요? 그럼 결과는? (선동 집중해 있는데 난데없이 큰 소리로) 빠~앙!!(깜짝 놀라는 선동) 새끼 바퀴벌레들이 위를 뚫고 나오는 거죠.

태호는 징그럽게 이를 드러내며 웃고

선동은 헛구역질을 한다.

선동 자살하기도 힘드네요.

태호 그래도 아무렴 사는 것 보단 낫죠. 세상엔 쉬운 일은 없답니다.

선동은 주사기로 피를 다 뽑아내 자살하는 방법을 가르키며,

선동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태호 최고인기 상품입니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갈 때 그 나른함이란... 음~ 어디보자. 하루정도 드리죠. 내일 중으로 간호사 도우미를 택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선동 네...

태호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선동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태호 고객님의 장기는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23. 자살주식회사 대기실

대형디지털전광판에 '유선동'의 이름과 '자살확정'이라는 글자가 뜬다. 가만히 그걸 바라보는 선동.

24. 파워성인DVD 가게, 밤

카운터 위엔 선동이 일전에 빌려간 성인DVD들이 탐처럼 쌓여있다. 선동 멍뚱멍뚱 카운터 앞에 서 있고 바로 앞엔 파워비디오 가게 주인이 앉아 있다. 가게 주인은 파마머리를 한 전형적인 아줌마 스타일이다.

주인 으휴~ 정말 운 좋은 줄 알아. 응? 조금만 더 늦었다면 내 성격에 가만히 안 있었어. 내가 또 인심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안 그럼 어떡할 뻔 했어? 응? 어디보자. (계산기를 탁탁 두드리며) 물어야 될 연체료가...

순간 탁하며 반납할 성인DVD 탑 옆에 또 다른 성인DVD 탑이 놓인다. 주인아줌마 시선을 들어 선동을 쳐다본다. 선동 당당하게 성인DVD 9개 무료 대여권을 주인아줌마 앞으로 척 내민다.

25. 선동의 집 안방, 밤

집 안으로 들어온 선동. 매우 더러운 집 안 내부를 바라본다. 안방 한 가운데에 목 잘린 바퀴벌레가 있다. 마침내 죽은 듯 움직임이 없다.

선동 쭈그러 앉아 그 목 잘린 바퀴벌레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려본다.

바퀴벌레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몇 차례 더 바퀴벌레를 건드려보는 선동.

그러다 잠깐 시선을 돌린 사이 이미 사라져 버린 바퀴벌레.

시간경과.

혼자 덩그러니 더블침대에 누워

DVD 플레이어로 성인DVD를 감상하는 선동의 모습.

성인 남녀배우들의 신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린다.

26. 선동의 집 내부, 아침

이어지는 성인남녀의 신음소리. (보는 장소만 바뀜)

거실소파에 누워 성인DVD를 감상 중인 선동.

밤새 잠도 자지 않았는지 눈알이 시뻘겋게 충혈 되어 있다.

성인DVD는 여성 상위 체위부터 시작을 한다.

선동 성인물의 남자주인공의 자세와 자신의 자세가 비슷하자

괜히 그걸 따라서 허리를 움직여본다.

그러다가 체위가 옆치기로 바뀌자 선동도 옆으로 따라 누워 허리를 움직인다.

27. 선동의 집 대문 앞, 저녁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누군가의 늘씬한 다리가 보인다.

늘씬한 다리는 계단을 올라 선동의 집 대문 앞에 선다.

초인종을 누르는 가늘고 긴 하얀 손가락.

누군가 하얀색 간호복을 곱게 차려 입었다.

희고 긴 손가락으로 다시 한 번 초인종을 누른다.

그제야 인터폰에서 선동의 킁킁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선동 (소리) 문... 열려 있어요!

누군가는 희고 긴 오른 손으로 바로 현관 문고리를 잡고 돌린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28. 선동의 집 거실, 저녁

간호복을 입은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서자
웬 남녀의 신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누군가 늘씬한 다리를 사뿐사뿐 움직이며 소리의 근원지인 거실 쪽으로 이동한다.
선동 소파에 앉아 하얀색 팝콘을 먹으며,
에로비디오의 체위(앉은 체위)를 따라하며 비디오를 감상 중이다.
선동의 옆으로 가 앉는 누군가. 이제 얼굴이 보인다. 김리나 이다.
선동 고개 한번 돌리지 않을 정도로 에로비디오에 푹 빠져있는 상태.
남녀의 신음소리 계속 들리는 가운데,

선동 (전혀 리나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저기 죄송한데 10분 정도
뒤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리나 예. 뭐~ 그러세요. (에로비디오를 함께 감상하며)

선동은 낮익은 여자목소리가 들려 잠시 고개를 돌린다.
두 사람 서로 눈이 마주친다.
리나 수줍게 웃는다.

선동 (순간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어~ 저기... 안... 안녕하세요.
리나 (살며시 웃으며) 네. 안녕하세요.

선동 이내 고개를 바로하고 성인DVD를 본다.
리나도 고개를 바로 하고 함께 감상한다.
성인DVD에서 들리는 남녀의 신음소리에
점점 어색한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분위기.
선동은 바로 옆에 앉은 리나를 계속 의식한다.
그러다 리나가 팝콘을 집어먹으려고 뺨은 손이 팝콘을 집던 선동의 손과 부딪힌다.
괜히 얼굴이 빨그레 지는 두 사람.
다시 화면에 집중하려고 애쓰는 선동.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리나의 가슴을 주물럭 만진다.
서로 무안한 표정을 짓는 두 사람.
마침내 참지 못하고 리나에게 키스하는 선동.

리나 왜 이러세요?

리나의 반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키스하는 선동.

리나 어머~ 이러시면 안돼요.

선동 섰어!! 지금 섰어요!! 죽기 전에 빨리!!
리나 이러지 말아요. 아! 이러면 안돼요. 정말!

성인DVD에서 나오는 남녀의 신음소리와
선동과 리나의 신음소리가 교대로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선동은 마침내 리나의 옷을 벗기고 리나도 선동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이젠 리나가 적극적으로 변해 얼굴을 선동의 거기로 가져간다.

선동 허... 허억...

달아오른 선동 리나를 소파 위로 쓰러트리면,

29. 선동의 집 안방/침실

곧바로 침대 위로 장소가 이동되어 쓰러진다.
선동과 리나 침대 위에서 열심히 섹스를 시작한다.
성인DVD에서 나온 여성상위부터 옆치기, 앓은 체위를 그대로 따라하는 선동.

리나 아아!! 오... 오빠!!
선동 혁혁!! 네에?
리나 (반말) 콘... 아아!! 콘돔 껴어?
선동 (존대어) 아... 아니요.
리나 여기 콘돔!
선동 안 끼면... 안 될까요?
리나 꺼! 꺼! 빨리!
선동 (서랍을 열어 콘돔을 꺼내) 예. 혁혁! 잠시만요. (잠시 섹스 중단하
고)
리나 빨!! 빨리~!!

선동 순식간에 콘돔을 끼웠는지 다시 삼입한다.
선동 더욱 격렬하게 허리를 움직인다.
물 흐르듯 선동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땀.
누구를 죽이기라도 할 듯한 잔인하게 일그러진 선동의 얼굴.

리나 오빠!! 너무 죽여줘!!
선동 더 죽여줄까요?
리나 응. 더 죽여줘!! 아아!!

선동 (더 세계 허리를 움직이며) 헉헉!! 허어헉헉!!
리나 (한층 높아진 신음소리) 아아!! 아-아아!!
선동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신음소리 내며) 아아!! 아아!!
리나 아아!! 오빠 왜 그래?
선동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아아!! 아아!!
리나 아아!! 콘돔 꺾으니깐 안에다 싸!! 오... 아아!! 오빠~
선동 고... 고맙습니다. 그럼~ 아!! 아아아아-!!

선동은 사정한 듯 리나를 아래로 두고 죽은 사람처럼 풀썩 쓰러진다.
리나도 죽은 사람처럼 눈을 감는다.
내부엔 거친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이윽고 리나는 숨이 조금 잦아들자 선동을 밀쳐내며,

리나 잠깐만.

리나는 손을 내려 무언가를 만지작거린다.
뭔가 불길한 표정이다.

리나 콘돔!

선동은 황급히 손을 내려 콘돔을 들어본다.
정액이 뚝뚝 떨어진다.
허탈하게 콘돔을 바라보는 선동과 리나.

선동 헉! 찢어졌다!

리나는 원망의 눈길로 선동을 바라본다.
선동은 괜히 미안한 얼굴이 되어 그녀의 시선을 피한다.
바로 그때 멥동멍동 초인종 벨소리가 들린다.
선동은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거실로 나간다.

30. 선동의 집 거실

초인종 벨소리가 계속 울리는 가운데 현관문을 여는 선동.
문이 열리자 야한 옷을 입은 화장이 짙은 여자가 껌을 짹짹 씹으며 서 있다.
주인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화장이 짙은 여자는 자연스럽게 신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끈나시 원피스를 홀러딩 벗어 던진다.
순식간에 알몸이 된 화장이 짙은 여자.

유선동 누구... 세요?
화장녀 네?
유선동 누구신데 제 집에 이렇게?
화장녀 (태도가 조금 수그러지더니) 출장안마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화장녀의 손에 들려진 오일.
순간 거실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선동.
거실에 벗겨진 리나의 간호복.
리나가 들고 온 구급상자에 든 커다란 주사기.

시간경과.
선동과 리나 어색하게 서로 거리를 두고 소파에 앉아 있다.
잠시 흐르는 침묵.

선동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리나 이제 와서 뭐 어찌겠어요.
선동 출장안마 줄 알았어요. 자살도우미일 줄이야... (자학하는)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리나 괜찮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요. 뭘...
선동 정말 죄송합니다.
리나
선동 저기 저녁 안 드셨죠? 밥 많이 있는데 식사하세요.
리나 아뇨. 괜찮아요.
선동 아니에요.

선동 별떡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들어간다.

리나 정말 괜찮거든요? 저 원래 저녁은 안 먹어요.

31. 선동의 집 부엌, 저녁

리나 잘 먹었어요.

별써 밥을 다 비운 리나.

선동 더 드세요.
리나 (고개를 절레 흔들며) 아노아노. 너무 많이 먹었는지 배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지금 몇 시예요?
선동 (벽시계를 보며) 8시 9분...
리나 (깜짝 놀라며) 삶과 죽음 시작했겠다.
선동 삶과 죽음?
리나 오늘이 마지막 회깁아요.

32. 선동의 집 거실

TV에 '연속드라마 삶과 죽음' 이란 제목이 뜬다.

리나 옆에 조금 떨어져 앉은 선동.
두 사람은 TV 드라마 속으로 빠져든다.
이윽고 드라마가 끝나자,

리나 흑흑... 흑흑... 왜 꼭 잘생기고 착한 주인공은 죽는 거죠? (선동 쪽으
로 고개를 돌리며) 그죠?
선동

어느새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선동.
옆으로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다.
홀리던 눈물이 푹 그친 리나는 그를 안쓰럽게 쳐다본다.

리나 (선동을 흔들며) 저기요. 저기요. (어렴풋이 눈을 뜨자) 들어가서 주
무세요.
선동 으으... 끝났어요?

33. 선동의 집 안방, 밤

선동 막상 자려고 하니깐 잠이 안 오네요.
리나 정말 너무 힘들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느새 침대에 나란히 누운 두 사람.

선동 근데 우리 이래도 돼요?
리나 내일이 있잖아요.

선동 그건 그렇네요. 근데 제가 잘 때 피 빼실 거 아니죠?
리나 (웃으며) 설마 그것 때문에 잠 안 오는 건 아니죠?
선동 (더듬으며) 설... 설마요...
리나 어제 한숨도 못 잤다면서요. 맘 놓고 편히 자요.
선동 고마워요. 근데 혹시나 해서 그런데 정말 저 잘 때 빼면 안 돼요.
리나 한번만 더 물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제야 입을 다무는 선동.
시간경과.

리나 부인 때문이시죠?
선동 어떻게 알았어요?
리나 이런 일을 많이 하다보면 왜 죽으려 하는지 대충 느낌이 와요. 비슷한 사람이 상대를 알아보는 이치죠.
선동 아내는... 자살했어요.
리나 어머 죄송해요.
선동 아니에요. 괜찮아요.
리나 어쩐지 낯익은 얼굴이라 했어요.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선동 딱 남자랑 자는 걸 내가 봤거든요.
리나 아내를 많이 사랑 하셨나 봐요. 그 일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한 것을 보면요.
선동 네... 근데 아내도 나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워요.

측은하게 선동을 바라보는 리나.

34. 선동의 집 안방, 아침

창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오는 아침햇살에 눈을 뜬 리나.
그런데 옆자리엔 선동이가 없다.
리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안방을 나간다.

35. 선동의 집 부엌

안방에서 나오는 리나.
부엌에선 선동이가 아침식사를 준비 중이다.
인기척에 고개를 뒤로 돌리는 선동.

선동 껌네요. 거기 앉아요.

리나 선뜻 식탁 앞 의자에 앉지 못하자,

선동 뭘 하더라도 아침은 꼭 챙겨먹고 해야죠.

그제야 자리에 앉는 리나.

이윽고 찌개와 밥을 손수 리나의 자리에 놓아주는 선동.

순간 리나의 얼굴이 죽은 아내의 얼굴과 겹쳐진다.

그러나 이내 리나의 얼굴로 되돌아가자 안타까워하는 선동.

리나는 자상한 선동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본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돌린다.

서로의 눈을 의식하며 식사를 하는 두 사람.

36. 선동의 집 거실

리나가 구급상자에서 주사기와 피를 담은 봉투를 준비하는 사이
어느새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선동.

선동 저기 리나씨!

리나 네?

선동 갑자기 급해서 그런데 금방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리나 그러세요.

이내 화장실에서 나온 선동.

흰 장갑을 끼고 주사기에 긴 주사바늘을 달던 리나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트린다.

다른 게 아니라 선동이가 엉덩이를 깐 채로 소파에 누워있기 때문.

리나 풋풋!! 뽕뽕뽕!! 푸하하하!! 푸하하하!!

영문을 모르는 선동의 얼굴표정.

결국은 팔을 걷은 선동.

주사기를 그의 팔에 꼽으려 하는 리나.

그런데 주사바늘을 꼽지도 않았는데 먼저 소리를 지르는 선동.

선동 악!!

선동은 괜히 무안한 얼굴이 된다.
리나는 이제 곧 주사바늘을 뽑으려 한다.
죽음을 코 앞에 둔 선동의 두려운 표정.
두 사람 다 식은땀을 흘린다.
선동은 아예 눈을 감아버린다.
마침내 주사바늘이 선동의 팔에 정확하게 꼽히고 피가 빠져나간다.

37. 길거리, 아침

손에 구급상자를 들고 도망치듯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는 리나.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뒤에서 선동이가 후다닥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는다.

선동 아니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리나는 아무 대꾸 없이 선동의 팔을 뿌리친다.

선동 왜 나 안 죽였어요.

선동을 무시한 채 다시 빠른 걸음으로 달아나는 리나.
그녀를 뒤따라오는 선동.

선동 왜 나 안 죽였냐니깐요!!

큰 소리에 순간 걸음을 멈추는 리나.
고개를 뒤로 돌린다.

리나 오빠 어제 죽은 드라마 주인공하고 너무 닮았어요!!

선동 (명한 표정)

리나 아무래도 전 안되겠어요. 그냥 다른 도우미 부르세요.

명하게 선 선동을 두고 가버리는 리나.

38. 선동의 집 거실

계속해서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자 호흡을 고르고 플립을 열어 전화를 받는 선동.
화면은 절반으로 쪼개져 선동과 태호의 모습이 동시에 보인다.

선동 여보세요?
태호 자살주식회사의 최태호입니다.
선동 (자연스럽게) 아~ 네에~ 안녕하세요.
태호 휴... 아니~
선동
태호 도우미를 따먹으면 어떡합니까?
선동 정말 죄송합니다. 조그마한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호 휴... 휴...
선동 제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태호 됐고요. 그런 얘기 따윈 듣고 싶지 않고요. 아니 대체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선동 어떻게 다른 도우미로 바꿔서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남자도우미로...
태호 (화를 최대한 죽이려 애쓰며) 후~ 아니 그런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스케줄에 얼마나 많은 차질이 생기는지 아세요? 자살 고객자가 유선동씨 하나뿐이 아니라고요.
선동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태호 휴... 오늘은 스케줄이 딱 차서 안 되니깐 내일 저녁 즈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동 네. 근데 저기...
태호 ?
선동 자살유형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을까요?
태호 (버럭) 아니 여기가 무슨 동네 슈퍼입니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선동 : 주사바늘을 보니깐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태호 : (신경질적으로) 아니 어떤 유형으로 바꾸고 싶은 건데?

39. 선동의 집 거실, 저녁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선동.

TV엔 축구중계가 한창이다.

자막에 대한민국 VS 일본 - 0대1로 한국이 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스트라이커가 아깝게 골포스트를 맞히자

선동 소리도 크게 내지 않고 특유의 코믹한 제스처로 아쉬워한다.

이내 현관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온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로 큰 덩치를 자랑하는 살이 찐 사내. 이름 남규정.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몸에 비해 얼굴표정은 온화하고 선해 보인다.
규정 뒤뚱거리며 선동의 옆으로 다가와 앉는다.
선동 축구에 빠져있느라 규정이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하자,

규정 (여자 같은 목소리로) 저기 안녕하세요.
선동 (잠깐 규정을 보는 것 같더니 다시 TV를 보며) 아~ 네. 안녕하세요.
규정 자살도우미 남규정입니다.
선동 (TV에 시선고정) 유선동입니다.

선동 축구를 보느라 정신없다.

선동 저기 정말 죄송한데... 축구 끝나고 시작하면 안 될까요? 정말 보고 싶은 경기라서...
규정 (잠시 망설이는 듯 싶더니) 뭐, 그렇게 하세요. 한일전이잖아요. 저도 축구 엄청 좋아해요.
선동 아~ 감사합니다.
규정 아니 필요. 근데... 지금 몇 대 몇이에요?
선동 0대1로 지고 있어요. (또 아쉬운 장면이 나왔는지 특유의 코믹한 제스처를 취하며) 아~
규정 저 씨발!! 저걸 저렇게 차면 어떻게 해. 에이~ 씨발새끼들!! 아니 어떻게 저런 새끼들이 다 국가대표야. 맨날 공만 차는 새끼들이 왜 저걸 못 넣어. 세금이 아깝다. 세금이 아까워. 다 싸 죽여 버려야 돼. 저런 새끼는.

거친 욕설에 흠칫 놀란 얼굴로 규정을 쳐다보는 선동.
선한 얼굴과는 다르게 입은 거친 규정.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인물.
규정 무안한지 괜히 헛기침을 하고 선동은 이내 TV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다시 축구에 빠져드는 두 사람.

규정 에이~ 개새끼!! 내가 차도 저것보단 잘 차겠다. 어휴~ 죽여 버릴 개새끼들.

선동 다시 규정을 쳐다본다.
드디어 한국의 스트라이커 1점을 올린다.
선동과 규정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발광한다.

(주먹으로 벽을 치기도 하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한다)
그러다 서로를 껴안고 좋아하는 두 사람.
하지만 이내 어색함을 느낀 두 사람 서로의 품에서 떨어진다.
그러기도 잠시, 한국의 스트라이커가 또다시 한골을 터트린다.
선동과 규정은 좀 전보다 더 흥분한다.
마지막 골과 동시에 경기가 끝나고 두 사람은 한참동안 서로를 껴안고 방방 뒀다.

40. 선동의 아파트 옥상, 저녁

추적추적 내리는 비.
검정색 우산을 함께 쓴 선동과 규정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오며 숨 가쁜 대화를 나누는 중이다.

선동 오늘 경기 정말 죽이지 않았어요?
규정 정말 한편의 드라마가 따로 없네요. 특히 마지막 골이 정말 죽여줬
 죠.

규정 뚱뚱한 몸을 움직이며 어설피게 슛 포즈를 취해본다.

규정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양) 골~ 골골골~ 역전입니다. 역전!!

선동 조금 전 경기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히 떠오르는지 기쁜 표정이 된다.

선동 내일 저녁엔 일본이랑 2차전 있는 거 아시죠?
규정 (선동을 보며 냉담한 말투로) 못 보시겠네요.
선동 (사이) 그러게요. (아쉬운 얼굴)
규정 꽤 늦은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동 네...에.

갑자기 선동의 표정이 우울해지자 그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규정.

규정 혹시 소원 있으세요?
선동 들어주시게요?
규정 지금 제가 들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선 뭐든지...
선동 갑자기 생겼는데 괜찮을까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규정.

선동 배가 살살 아파 와서 그런데 똥 좀 누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규정 (버럭 신경질을 내며) 아니 그만 걸 왜 지금 말해요!!
 선동 아니 나는 소원 그래서 말한 건데... 뭐든지...
 규정 아니 그러긴 했는데... 그냥 좀 참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죽으면 안
 마렵잖습니까?
 선동 역시... 안되겠죠? (배를 움켜쥐며) 음...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규정.

41. 옥상 구석

하는 수 없이 옥상 구석에서 큰 일을 보는 선동.

규정 (코를 들이막고) 아직 멀었어요?
 선동 거의 다 끝났어요.
 규정 선생님 변비세요?
 선동 예. 제가 좀... 아주 질기네요. 이 놈이...
 규정 저쪽에 가서 기다릴 테니깐 빨리 오세요.

42. 선동의 아파트 옥상

난간 위에 서서 선동을 기다리는 규정.
 뒤늦게 옥상 난간 위로 올라온 선동.

규정 자, 그럼 이제 진짜로 시작해 볼까요?

규정은 일단 선동에게 잠시 우산을 넘겨준 후 몸을 푸는 동작들을 취한다.
 주로 몸을 미는 동작들을 힘 있게 연습한다.
 그런 뒤 다시 선동에게서 우산을 받아든다.
 이제 옥상 물탱크에 단단히 묶인 굵은 밧줄을 선동의 목에다 건다.
 그리고 규정은 가슴팍에서 이상스런 표지의
 책 하나를 꺼내 펼쳐들더니 그것을 읽는다.
 성경구절인가 싶더니 교회 갈기도 하고 불교염불로도 바뀐다.
 그가 주절주절 하는 사이
 선동의 목에 찬 십자가와 팔목에 찬 염주가 차례대로 보인다.

규정 하느님의 이름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침내 규정의 주저리가 끝이 난다.

규정 혹시 자살 유서 있습니까?

선동 네.

태정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선동 (주머니에서 유서뭉치를 꺼내 규정에게 내밀며) 네. 뭐 여기...

규정 (유서를 받으며) 유서확인 은 저희 회사 방침 상 거처야 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단순히 유서에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선동 네에...

규정 (꽤 많은 분량의 유서를 한 장씩 넘겨보면서) 남기고 싶은 말이 참 많으시네요.

유서를 넘겨보던 규정은 실수로 유서 한 장을 떨어트린다.

규정 어머낫~

선동 바람에 날리는 유서를 주우려 잼싸게 허리를 굽힌다.

그런데 선동이가 허리를 굽히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엉덩이로 툭하고 규정을 밀어버린다.

규정은 심하게 팔을 휘젓다가 그대로 아파트 옥상에서 아래로 쏙~ 추락한다.

까뒤집혀진 우산이 어설픈 낙하산 대용 역할을 한다.

규정 크으아악!!

선동은 그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유서를 주워 몸을 돌린다.

당연히 그가 안 보이는데 오히려 황당한 표정을 짓는 선동.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본다.

그러다 문득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파트 옥상 아래에 주민들이 모여드는 것이 보인다.

이내 아파트 옥상 아래 주민들의 까-악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아직 상황과악이 안 되는 듯 선동은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한다.

41. 선동의 차 안

평평 울며 운전을 하는 선동.

선동 호아앙!! 호아아앙!!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뒷좌석에 누운 규정. 그의 온 얼굴과 몸엔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다.
규정은 선동의 유서를 짝 움켜쥔 상태로 백미러에 비친 선동을 죽일 듯 노려본다.

선동 호아아앙!! (백미러에 비친 규정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안 돼!!
조금만 참아!! 죽지 마!!

경조 등이 번쩍번쩍 거리고 비도 오지 않는데 차 와이퍼가 움직인다.
그리고 왼쪽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하는 선동.
중앙선까지 마구 넘나들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 그만 마주오던 대형트럭과 부딪힐 위기에 처한다.
급하게 핸들을 확 꺾는 선동.

선동 으아아아-!! 안-돼!!

다행히 아슬아슬 대형트럭을 비껴가는 선동의 차량.
자동차 바퀴가 끼이익 듣기 싫은 소음을 낸다.

42. 병원 응급실 복도

규정이 누운 응급침대에 붙어서 미친 듯이 달리는 선동.
하지만 선동은 응급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진 못한다.

‘수술 중’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은 선동은 머리를 싸매고 고통스러워한다.
이내 다다닥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고개를 들어보니 태호가 죽일 듯한 표정으로 선동을 노려보고 있다.
선동은 안절부절 못하고 태호는 계속 그 자세 그대로 그를 노려본다.
정지화면도 아닌데 꼭 정지화면 같은 상황이다.

이윽고 수술실을 박차고 나오는 의사에게 단걸음에 달려가는 선동.
그러나 태호는 여전히 스틸화면처럼 꿈작도 하지 않고 선동을 노려본다.
그런 그를 의식하며 의사와 대화하는 선동.

선동 선생님!!
 의사 믿겨지지 않습니다.
 선동
 의사 이진 기적입니다.
 선동 (의사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지만 뭐 그건 크게 걱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다시 걸을 수 없다는 점이 조금...
 선동 못 걷는 다고요?
 의사 산 게 어딥니까? 19층에서 떨어졌다면서요?
 선동
 의사 다시 한 번 기적이 일어난다면야 모를까.

43. 규정의 병실, 밤

눈을 감고 병실 침대에 누운 규정의 주위를 선동, 태호 의사가 둘러싸고 있다.

태호 왜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의사 그러게요. 거~참 이상하네. 돌아올 때가 훨씬 지났는데. 아무래도 사고 당시 정신적인 쇼크가 매우 커서 그런 게 아닌가하는 조심스런 추측을 해봅니다.
 태호 정확히 언제쯤 깨어나는 겁니까?
 의사 글썄요. 현재로선 뭐라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빠르면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돌아올 수도 있는 거라...
 태호 그럼 늦으면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사 아니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상황은 아니에요. 환자분 신체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
 태호 그래도 모르는 거 아닌가요?
 의사 물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
 태호 (의사의 말을 딱 자르며) 불쌍한 새끼...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니. 살아있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

죄책감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선동.

규정의 호흡소리만 가득 들린다.

44. 병원 야외 쉼터

규정의 호흡소리만 계속해서 들리는 가운데

나무와 꽃들이 준비한 병원 야외쉼터에 산책을 하러 나온 여러 환자들이 보인다.
아주 어린 꼬마들부터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보인다.
꼬마 환자들은 아픈 것도 잊었는지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다.
그 가운데 멍하니 벤치에 앉은 선동.

??? 정말 살아있네.

??? 의 목소리에 규정의 호흡소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현실적인 소리가 들린다.
선동이 고개를 들어보니 리나가 활짝 웃는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리나 밥 먹었어요?

선동은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다.

리나 안 먹었죠? 같이 먹으러 가요.

선동 전 먹을 자격 없어요.

리나 (애교떨며) 에이 그러지 말고. 네? 어서.

리나는 팔짱을 낀 뒤 그를 일으켜 세운다.

45. 병원 식당

마주 앉아 식사 중인 선동과 리나.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밥에 손도 대지 못하는 선동.

리나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면서 왜 그렇게 안 먹어요. 솔직히 배 많이
고프죠? 먹는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 안 먹는다고 알아주
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서 먹어요.

리나는 선동에게 직접 숟가락을 쥐어준다.

그제야 밥을 먹기 시작하는 선동.

리나가 반찬 이것저것을 그의 숟가락에 올려준다.

선동의 밥 먹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가 싶더니 이내 게걸스럽게 먹는다.

바로 그때 어디서 알고 나타났는지 태호가 식당 큰 유리창 앞에서

차려 자세로 서서 우걱우걱 밥을 먹고 있는 선동을 죽일 듯이 노려본다.

이내 그와 눈이 마주친 선동은 깜짝 놀라

입 안 가득히 씹고 있던 밥알을 모두 뱉어낸다.

46. 병원 야외 쉼터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선동의 등을 두드려주는 리나.

리나 이제 좀 괜찮아요?
선동 죽지 못해 미칠 것 같아요.
리나 비겁해요. 자기가 한 일에 책임도지지 않고 죽는 거...
선동 나 하나조차 책임 못 지는데 누가 누구 책임질 수 있겠어요.
리나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희망이 생겨날지...
선동 내겐 희망이란 없어요.
리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선동 근데 도대체 왜 이래요?
리나 뭐가요?
선동 (신경질을 내며) 아니 자꾸 나한테 왜 이러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워 죽겠어요.
리나 난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인데...
선동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선동의 신경질에 잠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

리나 저기요. 나 사실은... 정말 중요하게 할 말이 있거든요?
선동 됐으니깐 더 이상 말하지 마요.
리나 사실 나...
선동 하지 말라니깐요!!
리나 선동씨 좋아해요.
선동 깜짝 놀라며) 넹?
리나 좋아한다고요.
선동 저한테 왜 이러세요?
리나 우리 사귄래요?
선동 아니 지금 이럴 분위기가 아니잖아!!
리나 알아요. 나도 아는데 계속 보고 싶고 곁에 있고 싶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지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내서 말하는 거예요.
선동 우리 사귀어도 몇 시간 못 사귀거든요? 전 곧 죽는다고요.
리나 살면 되잖아요.
선동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리나 간단해요.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는 것 처럼요.
선동 휴... 휴... 아직 리나씨가 어려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험하
고 무모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 젊으니깐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깐 전 기억에서 없애주
세요. 먼저 일어날게요.

리나를 두고 가버리는 선동.
실연당한 리나는 평평 운다.

47. 병원 휴게실

힘없이 병원 복도를 걷는 선동은 병원 휴게실을 지나치려 하다가
걸음을 멈추고 휴게실 쪽을 바라본다.
병원 휴게실의 여러 환자들은 의자나 휠체어에 앉아 천정에 붙은 TV를 보는 중.
TV엔 한국 대 일본의 축구경기가 펼쳐지고 있다.
이내 한국의 스트라이커가 한 골을 터트리자
환자들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서로 열싸안고 좋아한다.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는 선동.

48. 규정의 병실, 낮

선동은 노란 민들레 꽃이 피어 있는 초라한 화분 하나를 들고
규정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런데 그때 태호가 병실 밖으로 나오면서 두 사람은 잠시 멈칫한다.

시간경과.

한적한 병원 복도에 선 선동과 태호.
태호는 선동에게 과속, 신호위반 딱지를 준다.
일전에 규정이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선동이가 그를 뒷좌석에 태우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과속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이다.
핸들을 붙잡은 선동의 우는 표정이 압권이다.
태호는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연다.

태호 간호사를 따먹질 않나,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동생을 식물인간 상
태로 만들어 놓고 (선동의 손에 든 민들레 꽃을 보며) 식물을 가져
오지 않나. 그 다 시든 걸 왜 가져 왔어요?
선동 집 베란다에 하나 있길래...

태호는 눈에 흰자를 드러내며 선동을 죽일 듯이 노려본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선동.

태호 죽어요.
선동 네?
태호 자살하시라고요. 왜 자꾸 버티요?
선동 혹시 모르잖아요. 희망이 생겨날지.

태호는 선동을 노려본다.

태호 (피식 웃으며) 아니 지금 당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요? 정말? 더 비참한 꼴 당하기 전에 정리해요.
선동

먼저 규정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태호.
한동안 병원 복도에 서 있는 선동.

49. 경찰서 복도

태호와 마주 선 선동.
태호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내 선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에게 인사한다.
태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선동 규정씨에게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대신해서 좀 전해
주세요.
태호

선동 기적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태호 당신에겐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안녕히 가세요.

방에서 나가는 선동.

50. 자살주식회사 셔틀버스, 저녁

셔틀버스를 운전 중인 천기사.
차창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한강을 조용히 바라보는 선동.

51. 자살주식회사 건물 옥상, 저녁

자살주식회사 건물 옥상으로 올라온 선동과 천기사.
앞 쪽으론 야경이 멋진 한강다리가 보이고
평평평 아름답게 폭죽도 터진다.

천기사 (선동에게) 맛있었어?
유선동 네?
천기사 맛있었냐고?
유선동 뭐가요?
천기사 미스 김 말이야. 미스 김!!

천기사를 쳐다보는 선동.

선동 아~ 네. 맛있었어요.

발끈하는 천기사.

선동 선생님도 회 좋아하세요. 갑자기 회가 먹고 싶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천기사.
하지만 여전히 성질이 난 얼굴로 준비해온 기계발판을 바닥에 내린다.

천기사 여기에다 발을 사뿐히 즈려 밟고 올라 서.
유선동 네.
천기사 우리 회사의 자랑거리인 최첨단 자살 장비로써 리모컨으로 각도,
스피드 모두 조절 가능하며 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압축스프링의 힘으로 최장 100미터까지 날아갈 수 있지. 멋있지?

천기사는 리모컨으로 선동을 약 올리듯 말한다.

천기사 마치 대포알처럼 날아갔다가 떨어지는 거지.
유선동 시원하겠네요.
천기사 몇 미터로 헤드릴까?
유선동 최대치로 날려주시겠어요?
천기사 아주 화끈한 젊음이네. 그럼, 물고기 밥이나 되시게!!

천기사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선동의 핸드폰 띠리리 울린다.

선동 ... 누구세요?
리나 오빠... 저 리나예요.
선동 리나씨...?
리나 어떡해요. 나 좀 도와줘요.
선동 (어병한 표정)

선동이가 전화통화를 하는데 천기사는 기다려 주지 않고
리모컨의 버튼을 꺾 누른다.
압축스프링의 반동으로 하늘 높이 대포알처럼 슈-욱 날아가는 선동.
한강으로 날아가는 인간이 폭죽과 어우러져 아름답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선동이가 초연한 표정을 잃지 않고
공중에서 최선을 다해 리나와 마지막 통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선동 미안하지만, 나 지금 죽고 있거든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던 선동은 어느새 정점(최대높이)에 달한다.

리나 나도 죽고 싶어. 나 임신했단 말이야!!

순간 선동의 표정이 180도 짝 바뀌는 동시에 아래로 무서운 속도로 추락한다.

선동 으아아아-아아아!!

한강다리가 흔들릴 정도로 크게 비명소리를 내지르는 선동.
한강에 빠지기 일부직전!!

52. 규정의 병실

병실에 누운 의식불명 상태의 규정.
그런데 순간 눈을 번쩍 뜬다.
규정의 의식이 기적적으로 돌아왔다!!

53. 한강

선동 으아아아-아아아!!

핸드폰을 귀에 대고 한강으로 추락 중인 선동.
이내 한강으로 풍덩 빠진다.
핸드폰 한강 깊숙이 가라앉는다.
물에 빠진 선동은 헤엄을 전혀 치지 못해 허우적댄다.

선동 살려주세요. 어푸... 살... 살려주세요!!

54. 자살주식회사 화장실

화장실에서 선동과 전화 통화 중이던 리나.

리나 나도 죽고 싶어. 나 임신했어!!
선동 (소리) 으아아아-아아아!!

괴성이 중간에 뚝 잘리며 뚜뚜뚜 통화 끊기는 음이 들린다.
리나 전화를 끊고 다시 통화 버튼을 눌러본다.
뚜뚜뚜 시끄럽게 들리는 통화 불가음.

55. 한강

선동 으앗!! 으아악!! 어푸!! 살!! 살려주세요!!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살아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는 선동.
그러나 저녁인데다 근처에 있는 시민들이 없어서
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를 발견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헤엄도 전혀 치지 못하는 선동.
주변에 유람선이 떠다니지만 근처에 갈 수 없다.

선동 제발!! 어푸!! 킁킁!! 제에발!! 킁킁!!

마침내 힘이 다 빠졌는지 점점 한강 물 속으로 가라앉는다.
수면의 파동이 잠잠해진다.

56. 한강 둔치

한강 둔치에 앉아 밤낚시를 즐기는 노인1과 노인2.

노인1은 잠시 졸고 있는데 갑자기 낚시 줄이 크게 움직이자 잠에서 벌떡 깨어난다.

노인1 큰... 큰 놈이여!!

그런데 낚시 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흔들린다.

노인1이 오히려 한강 안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려고 한다.

이에 깜짝 놀란 친구 노인2가 노인1의 낚시 줄을 함께 잡아당긴다.

이제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 온다.

엄청난 놈이다.

그것도 쌍코피를 터트리며 번쩍 올라오는 인간물고기! 유 선동!!

공포 그 자체이다.

선동 (이빨에 걸린 낚시 줄이 너무 아픈지 괴성을 지르며) 크허허헉!!

노인1과 노인2는 선동이 지르는 괴성에 더욱 놀라 뒤로 나자빠진다.

노인1 허-어억!!

노인2 괴... 괴물이닷!!

노인1과 노인2는 낚시대를 버려두고 혼비백산 달아난다.

선동은 사력을 다해 한강 위로 올라와 물을 다 토해낸다.

선동 으커헉!! 으커컹헉!!

대자로 쓰러지는 선동.

하지만 살았다는 기쁨에 웃음을 참지 못한다.

일어설 힘도 없는데 무리해서 몸을 일으키려한다.

결국 바닥을 엉금엉금 기어서가는 선동.

57. 한강 인근 공중전화부스

물에 흠신 젖어 생쥐 꼴이 된 선동.

한강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부스로 쓰러지듯 들어간다.

선동은 수화기를 들고 핸드폰을 쳐본다.

그러나 물 먹은 핸드폰은 완전 고장이 나 액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비틀거리며 공중전화부스에서 나가는 선동.
택시를 잡기 위해 위험천만하게 달리는 도로 속으로 뛰어든다.

58. 자살주식회사 빌딩 앞

택시를 타고 자살주식회사 빌딩 앞에 도착한 선동.
이제 막 자살주식회사 빌딩에서 나오는 리나의 모습이 보인다.
선동은 택시에서 내리려 하는데 곧바로 그녀 뒤에서 태호와
검정색 양복을 입은 사내 한명이 나온다.
뒷좌석에 몸을 완전히 웅크리는 선동.
그런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택시기사.
선동의 시선에서 보이는 태호와 리나.
태호는 계속해서 리나를 다그치는 모습이다.
(선동의 시점이라서 그들의 대화내용이 들리진 않는다)

검정색사내가 고급승용차 뒷문을 열자 태호와 리나가 뒷좌석에 오른다.
바로 뒷문을 닫고 운전석에 오르는 검정색사내.
어딘가를 향해 출발하는 태호의 고급승용차.
뭔가 불길한 얼굴이 되어버린 선동.

선동 (택시기사) 저기 앞에 차 좀 뒤따라가 주세요.

59.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앞

선동이 탄 택시는 태호의 승용차를 바짝 추격 중이다.
이윽고 태호의 승용차는 어느 하얀색 건물 앞에서 끼익 멈춰 선다.
선동을 태운 택시도 따라서 끼익 멈춘다.
요금 미터기에 찍힌 9천 900원의 택시요금.
이내 요금은 만원을 훌쩍 넘어가 버린다.
검정색사내는 신속하게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고 태호와 리나가 내린다.
검정색사내는 주차하러 다시 차에 오르고
태호와 리나 두 사람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선동은 차창 밖으로 눈을 들어 하얀색 건물의 이름을 확인한다.
'생명 산부인과' 다!!
순간 화들짝 놀라는 선동.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진다.

택시기사 (사람 좋게 웃으며) 손님~ 만 백원 나왔는데 그냥 만원만

주십시오. 허허허.

아무런 반응이 없자 택시기사는 고개를 뒤로 돌리는데
뒷좌석엔 이미 선동이가 없고 뒷문이 활짝 열려져 있다.
저만치 무임승차한 선동이가 다다닥 도망치는 모습이 보인다.

택시기사 뭐야? 저 씨발!!

순간 사람 좋게 웃던 택시기사의 표정이 험악하게 돌변하더니
바로 문을 박차고 나가더니 선동의 뒤를 쫓는다.

택시기사 야이 개새끼야!! 잡히면 죽어!! 거기 안 서!!

리나와 태호의 뒤쫓는 선동의 뒷모습.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쫓는 택시기사의 뒷모습.

60.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안 (1층)

허겁지겁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온 선동.
리나를 찾기 위해 고개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1층을 헤맨다.
내부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 찾기가 쉽지가 않다.
다행히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태호와 리나의 뒷모습을 발견하는 선동.
어서 그들을 쫓기 위해 다시 뚫다.
뒤늦게 택시기사가 허겁지겁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택시기사는 선동을 찾으려고 고개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1층을 헤맨다.

택시기사 에라이~ 쳐 죽일 새끼!!

한편, 복도 끝에 다다른 선동은 아무 망설임 없이 2층으로 오르려 하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지 딱 멈춰 선다.
선동은 지하를 내려다본다.
지하는 너무 음산한 느낌이어서 마치 산부인과 건물이 아닌 다른 장소처럼 보인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니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소리인데
아기울음 같기도 하고 성인여자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선동은 지하 쪽으로 방향을 튼다.
조심스레 한 걸음씩 아래로 내려간다.

61.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안 (지하)

지하로 내려가니 꽤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인다.
(배부른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교복 입은 여학생들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어두컴컴한 조명이 드는 지하전체를 병원으로 사용하는지
의사와 간호사가 바쁘게 들락날락거린다.
선동은 리나를 찾으려고 조심스럽게 이리저리를 헤맨다.
하지만 미로 같은 지하는 꽤 넓은 편이어서 찾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개의 문들 앞에 '낙태실'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선동은 더욱 다급해져 걸음을 재촉한다.
어느 코너를 돌아마자 리나와 태호 그리고 의사의 모습이 보인다.
선동은 재빨리 벽을 방패삼아 몸을 숨긴다.

의사 들어가셔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의사가 열어준 낙태실 안으로 들어가는 리나.
그녀가 들어간 낙태실 주변을 태호가 계속해서 맴돌자 선동은 안절부절 못한다.
때마침 바로 앞에 보이는 의사실에서 의사 한명이 나오자
선동은 재빨리 의사실로 들어간다.
황급히 옷걸이에 걸린 의사가운을 걸치고 서류철을 하나를 집어 들고 나온다.
선동은 서류철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태호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간다.
다행히 태호는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선동은 무사히 리나가 있는 낙태실 안으로 들어간다.

62. 생명 산부인과 낙태실

낙태실에 누운 리나는 공포감에 몸을 부들부들 떤다.
이내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뚜벅뚜벅... 점점 겁을 먹는 그녀.
갑자기 그녀의 얼굴 위로 선동의 얼굴이 스~욱 나타난다.
깜짝 놀라 상체를 벌떡 일으켜 뒤로 물러나는 리나.

리나 악!!
선동 나예요! 나!
리나 설마... 또...?

감동스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선동.

선동 어서 여기서 나가요.

리나 왜요?

선동 네?

리나 왜 나가야 하죠?

선동 아니 소중한 한 생명을 죽일 셈이에요?

리나 책임감 없는 부모는 싫었다고요. 뒤늦게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죠?

당황해하는 선동.

그러나 이내,

선동 리나씨...

리나

선동 사랑합니다.

리나 나 싫어해서 찻놓구선.

선동 싫어하진 않았어요. 다만 상황이... 알잖아요.

리나 사랑하지도 않았잖아요. 솔직히 이 아기 때문에 그러죠?

선동은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선동 솔직히 리나씨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게 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해요. 나 앞으로 리나씨를 많이 사랑할 거고 우리 아이도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 무엇보다도...

리나는 눈물을 그렁거리며 선동의 마지막 말을 듣는다.

선동 : (눈물을 툭툭 흘리며)... 살고 싶어요.

그의 마지막 말에 감동을 받았는지 리나도 눈물을 그렁인다.

선동이 손 내밀자 리나는 그의 손을 꼭 잡는다.

이제 두 사람은 어서 낙태실을 탈출하기 위해 내부를 살펴본다.

그러나 창은 너무 작고 출구는 선동이 들어온 문 하나뿐이다.

<인서트>

낙태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태호.

갑자기 리나가 있는 낙태실 안에서 무엇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자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음을 옮겨본다.

떨어진 의료용품들.

선동이 실수로 떨어트린 듯.

셋 하며 손가락을 입에 대는 리나.

이내 상황 정리되고 선동 문 앞으로 다가가기 전에,

선동 잠깐만. 내가 먼저 밖을 살펴볼게요.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와요. 알
 았죠?

고개를 끄덕이는 리나.

선동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으려고 한다.

그런데 잡지도 않은 문이 밖에서 열린다.

63.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안 (지하)

밖에 있던 태호가 문고리를 잡아 당긴다.

선동과 태호는 바로 코 앞에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다.

선동 악!!

태호 으아아악!!

서로 동시에 놀라는 두 사람.

선동은 저도 모르게 주먹으로 태호의 눈 부근을 힘껏 때린다.

뒤로 벌러덩 나자빠지는 태호.

태호 (양손을 마구 휘저으며) 어어어~ 허허헉~ 오지마!! 오지마!!

바로 그 틈을 노려 뒤에 있던 리나가 선동의 손을 짝 붙잡고 도망친다.

리나 어서 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힘차게 달린다.

도망치는 둘의 모습을 보고 나서야 정신이 드는 태호.

순식간에 복도 끝에서 사라지는 둘의 모습.
그제야 맞은 자리가 얼얼한지 한쪽 눈을 문지르는 태호.

64.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안 (1층)

황급히 도망치는 선동과 리나.
그런데 선동 무엇을 봤는지 갑자기 멈춘다.
리나도 따라 멈춰 그를 쳐다본다.
선동은 유리창 너머로 신생아실을 들여다본다.
신생아실에는 응애응애 우는 예쁜 아기들이 가득 있다.
선동은 아기들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좀 더 유리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모빌소리가 선동의 귀에 어렴풋이 들려온다.

리나 (선동의 팔을 끌며) 뭐해요!! 어서 가요!! 가!!

선동이가 꾸물대는 사이 복도 끝에서 태호가 고래고래 고향을 지르며
뒤쫓아 오는 모습이 보인다.

태호 야이 죽일 년놈들아!!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두 사람.
하지만 쉽게 아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선동.

65. 생명 산부인과 건물 앞 / 택시 안

허겁지겁 생명 산부인과 건물에서 뛰어나온 선동과 리나.
제일 가까이에 대기해 있는 택시의 뒷좌석에 올라탄다.
그런데 선동의 표정이 싹 굳어진다.
조금 전 무임승차했던 바로 그 택시에 올라탄 것!!
선동을 보더니 반갑다는 듯 씨익 웃는 택시기사.
택시기사 재빨리 뒷좌석으로 상체를 던져 선동에게 헤드 락을 건다.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리나는 어리둥절해한다.

선동 아아~ 아아!! 살려주세요!! 아아아!!
기사 요 개새끼!! 죽어!! 죽어!!

택시기사를 뜯어 말리는 리나.

리나 아저씨~ 왜 이래요!! 아저씨!!

이제 막 태호가 건물 밖으로 뛰쳐나온 모습이 보인다.
다급해진 리나는 지갑에서 현금 10만원을 꺼내더니
택시기사의 손에 처억 쥐어준다.

리나 빨리 출발해요. 아저씨!!
기사 (곧바로 태도를 바꾸며) 자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태호를 뒤로하고 출발하는 택시.
산부인과에서 점점 멀어지는 택시에서 들리는 선동과 리나의 대화.

선동 (소리) 리나씨. 근데 좀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리나 (소리) 뭐요?
선동 (소리) 저기..... 배에 있는 아기 제 아이 맞죠?

바로 '찰싹' 따귀 맞는 소리.

선동 (소리) 미안해요.
리나 (소리) 나도 때려서 미안.
선동 (소리) 아... 아니에요.
리나 (소리) 근데 우리 이제 어디로 가요?
선동 (소리) 그러게요. 어디로 가죠?

66. 해안도로, 새벽

해안도로를 쉿쉿 달리는 선동과 리나를 태운 택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이다.
검붉고 거친 파도소리가 차 안 가득히 들려온다.
이내 '차량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 도로가 막혀있자 멈춰서는 택시.

기사 여기가 끝이네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택시에서 내린 선동과 리나.
부-응 반대편 쪽으로 출발하는 택시.
리나 앞에 쭈그려 앉는 선동.

선동 업혀요.
리나 됐어요.
선동 홀몸도 아닌데 지금부터 무리하면 안돼요.
리나 (부끄럽게 웃으며) 정말 괜찮은데...

리나를 업는 선동.
한 번 심하게 비틀거린다.
하지만 이내 균형을 잡고 아래에 보이는
작은 항구마을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긴다.
이내 수평선에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둘의 주위는 점점 밝아진다.

67. 부두, 아침

작은 항구마을 부두를 지나치는 선동과 리나.
두 사람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부두에서
어민들이 파는 대야에 담긴 살아있는 여러 종류의 수산물을 구경한다.
선동은 리나에게 이끌려 즉석에서 수산물을 사먹기도 한다.

68. 해수욕장, 낮

하늘 높이 떠오른 태양.
아담한 규모의 백사장이 펼쳐진 해수욕장을 나란히 걷는 선동과 리나.
백사장엔 주로 동네 꼬마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노는 모습이 눈에 띈다.
선동과 리나는 즐겁게 노는 꼬마들의 머리를 슬쩍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다.
어느새 바닷물 속에 발을 담근 두 사람.
조금씩 걷다보니 어느새 허리까지 차오른 바닷물.

선동 (백사장 쪽을 돌아보며) 그만 돌아가요.

갑자기 리나는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선동을 앞으로 세계 밀어버린다.
갈갈대며 좋아하는 리나.
그런데 선동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바닷물에 빠져 허우적댄다.
뒤늦게 바닥에 발이 쉽게 닿는 것을 인지한 선동.

선동 (화를 내며) 아니 그렇게 뒤에서 밀면 어떡해요!
리나 장난친 건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선동 아니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 사람을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어버리면 얼마나 허무해요.
리나 그냥 이렇게 서면 되잖아!!

바닷물이 그녀의 허리 정도 밖에 닿지 않자 순간 무안해진 선동.

리나 괜히 자기 혼자서 오바하고 난리야.

리나는 입을 툭 내밀고 혼자서 투덜대며 뒤돌아간다.
그녀를 뒤쫓는 선동.

선동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다니깐요.

선동이 그녀에게 다가가 살며시 어깨에 손을 올린다.
그러자 곧바로 풀어지는 리나.

리나 근데 수영 못해요?
선동 조만간 배우려고요. 수영 못해서 죽을 뻔 했었거든요. 리나씨 수영
잘 해요?
리나 전혀.
선동 그럼 같이 배우면 되겠네.

점점 작아지는 두 사람의 대화소리.
잔잔한 파도소리만 남아있다.

69. 여관방, 밤

‘불꽃 여관’ 네온사인 간판.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항구도시의 아름다운 밤풍경과 파도소리.
여관 내부는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지 지저분해 보인다.
선동과 리나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중.
TV엔 새 주말드라마 ‘새로운 인생’ 이 방영중이다.
다음 이 시간에... 라는 자막이 뜨면서 끝이 나자 TV를 끈다.
조용해지자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바로 그때 리나의 발밑으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간다.

리나 엄마야!!

리나는 화들짝 놀라 선동에게 몸을 날린다.
두 팔을 벌려 그녀를 받들어 안은 선동.
조금 에로틱한 자세.
신혼남이 아내를 침실로 데려갈 때 자주 선보이는 그런 자세.

리나 바... 바퀴벌레...
선동 그냥 내버려둬요. 목 잘라도 안 죽어요.

그제야 조금 진정하는 리나.
그런데 두 사람은 에로틱한 자세 때문에 이내 분위기가 또 어색해진다.
잠시 그 자세로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리나가 먼저 말을 꺼낸다.

리나 씻을... 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리나를 번쩍 들어 올리는 선동.
리나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진다.
선동은 욕실 앞까지 뚜벅뚜벅 걸어간다.
그리고 리나를 욕실바닥에 내려준다.

선동 (매너 있게) 먼저 씻어요.

선동은 눈치없게 뒤돌아서 침대로 가 앉는다.
리나는 통한 표정이 되어 혼자 욕실로 들어간다.
샤워기 물 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니
이내 옷을 다 벗은 리나가 욕실 문밖으로 고개만 살짝 내민다.

리나 오빠.
선동 네?
리나 (애교 있는 목소리로) 미안한데, 욕실 타일이 짧아서 그러는데 잠깐
만 들어와서 등 좀 밀어줄래?
선동 (홍분되는 표정)
리나 (활짝 웃으며) 응?
선동 (침을 꿀꺽 넘긴 후) 으...으응.

리나가 있는 욕실 안으로 부끄럽게 들어가는 선동.
미는 힘이 약했는지 욕실 문 스프르르 닫히는 것 같더니

완전히 닫혀진 앓고 살며시 열려 틈이 생긴다.
욕실 안에서 샤워기 물 트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곧바로 선동과 리나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이상하게도...

리나 아!! 아아!! 아아아!!
선동 혁!! 혁혁!! 혁혁혁!!
리나 아!! 오... 오빠 좋아? 아!!
선동 응. 자기는? 혁!!
리나 좋아. 너무 좋아.
선동 그냥 안에다 싸도 돼? 혁혁!!
리나 좋아. 아아!!
선동 고마워!! 혁혁혁혁혁!!
리나 아아아아아!!

신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우당탕 세면도구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
세면대 물 틀어지는 소리도 들린다.
변기에 물 내려가는 소리도 들린다.
욕실에 걸린 긴 타올이 살며시 보인다.

시간경과.
불 꺼진 여관방.
침대에 누운 선동과 리나.
리나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

리나 오빠 자?
선동 아니.
리나 잠 너무 안 온다.

자리에서 일어나 전등스위치를 켜는 선동.

70. 해수욕장 인근 노래방, 밤

선동이가 앞 찢에서 전등스위치를 누르면 노래방에 화려한 조명이 들어온다.
그리고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위의 멘트가
뽀빠라뽀 연주곡과 어우러져 나온다.
노래방 책상 위엔 맥주가 가득 올려 있고 선동과 리나는 자리에 앉아있다.
먼저 노래를 부르는 리나.

귀엽게 춤을 추는가 싶더니 선동을 앞으로 끌어내 함께 춤을 춘다.
즐거워하는 두 사람.
다음 곡은 선동이 부른다.

-Bravo My Life (Sung by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저문 어느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 뒤에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석양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것이 길이다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Bravo Bravo my life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음, 박자, 음정처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자신감 있게 끝까지 노래를 부르는 선동.
리나는 처음에는 웃다가 이윽고 웃음을 거두고
그의 모습에 빠져들더니 마침내 눈물을 그렁인다.
노래가 끝나고,

선동 (마이크를 대고) 나 노래 엄청 못하지?
리나 (다른 마이크를 대고) 응. 너무너무.

무안한 선동의 표정.

리나 근데 자신감 있는 모습 때문에 틀려도 맞는 것 같았어. 너무 멋있었어.

칭찬을 들은 선동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를 들썩인다.

리나 울어?
선동 (울먹이며) 아이씨~ 나 노래로 칭찬듣기 처음이야~

푸핫 웃음을 터트리며 리나.

71. 해수욕장 거리, 밤

노래방에서 나온 선동과 리나.

정면으론 백사장이 보여 파도소리가 매우 가깝게 들리고

네온사인은 밤거리를 밝히고 있다.

거리는 전체적으로 밝은 것이 아니라 몇 안 되는,

네온사인이 있는 곳만 밝고 없는 곳은 어둡다.

(이 어둠과 밝음의 공간은 계속 교차된다. 어둠-밝음-어둠-밝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앙상한 나무와 잎,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다)

길을 걷던 선동과 리나는 어둠을 지나쳐 밝은 공간에서 멈춰 서더니

낮은 담장 쪽으로 다가가 엉덩이를 붙이고 앉는다.

잠시 아무 말이 없는 두 사람. 파도소리만 고요하게 들린다.

선동 우리 내일 돌아가자. 나 취소하고 올까봐.

리나 (놀라며) 뭐?

선동 도망치기가 싫어졌어. 항상 현실에 안주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만 다니려 했어. 그러다가 지치면 포기해 버리고... 이젠 그럴 순 없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야지.

하지만 리나가 걱정스런 눈빛을 감추지 못하자,

선동 걱정 마. 잘 해결하고 돌아올 거야.

72. 공중전화부스, 저녁

태호 여보세요.

선동 (수화기를 들고 당당하게) 안녕하세요. 유선동입니다.

태호 야이~ 개새끼야!! 너 뒤질래?

화면은 절반으로 쪼개져 선동과 태호가 통화하는 모습이 동시에 보인다.

태호 도대체!! 왜 안 죽는 거야? 왜!! 응? 귀신인 줄 알았잖아. 이 씨발새끼야!! 난 왜 때렸어. 미스 김은 왜 납치해갔어?

선동 저기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네요.

태호 네가 한 행동들이 더 지나쳐!!

선동 진정하시고
 태호 진정은 니미!
 선동 우리 전화로 이럴 게 아니라 만나서 이야기 합시다.
 태호 그래. 말 잘했어. 지금 어디야?
 선동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죠.

선동은 전화를 끊고 공중전화부스에서 나와 자살주식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73. 자살주식회사 9번 방

태호 앞에 무릎을 꿇는 선동.

선동 선생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내 이렇게 무릎 꿇고 짹짹 빌테니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보상을 하라면 보상하고 시킬 게 있으면 뭐
 든지 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내 선생님의 개가 되라면 개도 되겠
 습니다. 꼬리 사랑사랑. 사랑사랑. 제발 자살을 취소할 수만 있다면.
 태호 됐어요. 괜히 올드보이 따라하지 마시고... 그냥 취소해드릴게요
 선동 네에?
 태호 없던 걸로 해드리겠다고요. 왜요? 싫어요?
 선동 아뇨. 너무 쉬워서...
 태호 자살이란 게 원래 선택 하기도 쉽고 안 하기도 쉬운 법이죠. 자살
 희망자들 중 변심한 자들에 한하여 언제든지 자살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저희 회사방침 9조 9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선동 아~네.

태호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살기록명부에서 유선동의 이름을 삭제한다.

태호 근데 이럴 거면 진작에 안한다고 말하지 왜 죽는다 죽는다 해놓고
 살고 또 살고... 추억할수록 괜히 화가 납니다.
 선동 할 말이 없습니다.
 태호 그만 나가주시죠. 다른 고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선동 네. 그럼. 안녕히!
 태호 아 잠깐. 한 가지 잊을 뻔 했네.

태호는 갑자기 주먹으로 선동의 눈을 힘껏 때린다.

태호 빛 갔었습니다.

태호의 한쪽 눈 주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다.
선동은 맞은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며 밖으로 나가려한다.
그런데 선동을 다시 한 번 부르는 태호.

태호 아!! 나가기 전에 이것 하나면 알고 가세요. 자살을 취소한 고객들
중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자살을 하려고 돌아오고 말았습니
다. 유선동썩 예외이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자살로부터 자유롭게 벗
어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태호의 말이 끝나자 문을 열고 나가는 선동.

74. 자살주식회사 앞 거리

자살주식회사 건물 밖을 나온 선동은 당황해한다.
어찌된 영문인지 주변의 사람들과 도로의 자동차 모두가 정지한 상태이다.
선동이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딛자
바로 곁의 사람들과 자동차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계속 걸어가니 마치 잔잔한 호수에 분 바람에 이는 물결처럼
사람들과 자동차의 움직임이 퍼져나가더니 순식간에 모두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선동은 길을 걸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는데
자살주식회사 건물이 사라지고 없다.

75. 산부인과 원장실, 낮

선동의 한 손은 리나의 두 손 위에 꼭 포개져 있고
다른 손은 리나의 불룩한 배 위를 어루만진다.
리나는 움직이는 아기의 영상(초음파)을 선동과 함께 바라본다.
행복한 얼굴의 두 사람.

여의사 애기 너무 귀엽죠?
김리나 네. 저렇게 조그만 아이가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믿기지 않
아요.

환하게 웃는 여의사.(50세 가량)
그런데 리나가 계속 팔꿈치로 선동의 옆구리를 툭툭치며 눈치를 준다.
선동은 하는 수 없이 여의사에게 말한다.

유선동 저기 선생님. 뭐 하나만 여쭙 봐도 괜찮을까요?
여의사 네.

선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여의사 가까이로 다가간다.
그런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여의사.
선동은 여의사에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유선동 임신 중에 가능한 체위 좀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이 약간 빨그레 지는 여의사

유선동 (속삭이며) 애기가 들을까 봐요.
여의사 (고개를 끄덕이며) 아~예... 근데 이거 어찌죠? 전 아직 처녀라...

50대로 보이는 여의사가 처녀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선동과 리나.

76. 수영장

대부분 아줌마로 이뤄진 수강생들 사이에 선동이 끼여 있다.
백발인 노인도 딱 한명 보인다.
젊은 수영강사의 시범과 강의를 열심히 경청하는 수강생들.
이내 백발노인이 먼저 시범적으로 물에 뜨는 연습을 하는데 꽤 잘한다.
박수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물에 뜨는 연습을 해본다.
대부분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다.
선동도 역시 물에 계속 가라앉는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한다.

77. 규정의 재활치료실

구슬땀을 흘리며 재활치료에 여념 없는 규정.
지지대에 몸을 의지하고 걸음을 내디디려 안간힘을 쓴다.
그때 재활치료실 안으로 들어오는 선동과 리나.
규정은 그들을 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

무릎을 꿇은 선동과 리나.

그들을 계속 만류하며 일으켜 세우려 하는 규정.

선동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규정 이리지 마십시오. 이러면 제가 불편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뭘. 오히려 제가 선생님 쪽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는 얼굴로 규정을 쳐다보는 선동.

규정 예전에 전 산 송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도와주면서 겨우 제 죽음을 연명해왔죠. 그러나 이제 달라질 겁니다. 전... 죽음의 순간에서 삶을 보았거든요.

미소 짓는 규정.

선동과 리나의 얼굴도 밝아진다.

다시 재활치료를 하기 시작하는 규정.

선동과 리나는 그런 그를 지그시 바라본다.

78. 선동의 집 안방, 밤

침대에 누운 리나의 배 위에 귀를 대고 누운 선동.

리나는 배가 간지러운지 몸을 살짝 비틀며 간들간들 웃는다.

리나 뭐가 들려?

선동 췌!!

일순 배에 집중하는 리나.

선동 축구 선순데?

활짝 웃는 리나. 덩달아 웃는 선동.

79. 선동의 집 화장실, 아침

소변기를 붙잡고 울고 있는 선동.

그의 울음소리에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리나가 깬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리나는 우는 선동의 모습을 보더니 놀라며,

리나 왜 그래?
선동 흐흐흐... 후후... 흐흐흐...
리나 오빠...
선동 오줌이... 이제 오줌이 밖으로 튀지 않아. 흐흐흐...

영문을 모르는 리나.

80. 수영장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을 놀리는 것에 비해 속도는 매우 느린 선동의 수영실력.
하지만 예전보다 실력이 많이 상승한 모습이다.
숨이 찬지 잠시 수영을 멈추는 선동.
물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다. 그대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선동.
이제 물에 뜨는 것 즈음은 너무 쉬워 보인다.

81. 규정의 재활치료실

재활훈련에 여념이 없는 규정.
음료수 박스를 들고 병문안을 온 선동과 리나.
안으로 들어서려다가 창문 안으로 보이는
규정의 모습을 보고 일순 자리에 멈춰 선다.
열심히 재활훈련 중인 규정과 그를 지켜보는 다른 한명의 누군가.
한 손에 지지대를 한 손엔 목발을 짚고 힘겹게 한걸음씩 내딛는다.
그러다 마침내 목발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잡고 있던 지지대에서도 떨어진다.
규정보다 더욱 긴장한 얼굴이 되는 선동.
넘어지려는가 싶더니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발을 앞으로 한걸음씩 내딛는다.
순간 기쁨의 탄성을 내지르는 규정.

규정 으아아악!

이를 지켜보던 선동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안으로 달려들어 규정을 끌어안는다.
안에 있던 다른 누군가도 소리를 지르며 규정을 끌어안는다.
세 사람이 한데 어깨동무를 하고 방방 뛰다.
선동은 뛰면서 문득 누군가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천기사이다.
잘 뛰던 천기사도 선동의 얼굴을 보는데 보는 순간 화들짝 놀라 뒤로 나자빠진다.

천기사 으허허헉!!

82. 오리고기 집, 저녁

환자복을 입은 규정과 선동과 천기사 그리고 선동과 리나가 테이블에 앉아 오리고기를 먹는 중이다.

천기사 정말 다들 기묘한 인연이네. 도우미와 가해자 하나에 피해자 둘. (선동과 리나를 보며 비꼬듯) 두 사람 정말 너무 잘 어울린다. 잘 어울려.

유선동 감사합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는 리나.

천기사 (선동을 보며) 그나저나 진짜 명 질기시네. 누가 보면 쌍둥이 인줄 알겠어. 허허허!!

유선동 이렇게 된 김에 그냥 살려고요. 허허허!!

천기사 뭔가 살만한 일은 생겼나보지?

유선동 곧 아빠가 됩니다.

남규정 그게 정말입니까?

유선동 저보다 리나씨 닮은 아이가 태어났...

천기사 (놀라며) 임... 임신했어?

유선동

천기사 미스 김이 임신? 정말이야?

어리둥절한 선동의 표정.

천기사 뱃 속 애 당신 애 맞아?

유선동 네에?

천기사 아니 확실하냐고?

시간경과.

오리고기 집에 있는 주변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시끄럽게 싸우는 천기사와 리나.

천기사 아니 미스 김 그때 분명히 나랑 딱 찼잖아. 왜 자꾸 부정하고 그래?

김리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그래. 오빠 우리 그냥 나가.

선동은 머리가 혼란스러운지 자리에 가만히 앉은 채 어쩔 줄 몰라 한다.

김리나 (선동의 팔을 끌며) 안 갈 거야?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는 선동.

천기사 미스 김 자꾸 오리 발 내밀다가 오리 된다. 응?

선동은 문득 철판에 지글지글 타오르는 오리고기를 쳐다본다.

리나에게 억지로 끌려가다가 걸음을 멈추는 선동.

선동 정말 내 아이 맞는 거지?

리나 오빠까지 정말 왜 이래.

선동 반드시 내 아이여야만 해. 지금 내게 그렇다고 말해줘.

리나 정말 오빠 아이 맞아. 됐지?

무언가 썩 개운치 못한 선동의 표정.

두 사람은 오리고기 집을 막 나가려 하는데

천기사가 갑자기 큰 목소리로 소리친다.

천기사 왼쪽 가랑이에 점!

순간 움찔해서 걸음을 멈추는 선동과 리나.

천기사 왼쪽 가랑이에 큰 점이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리나의 곁에서 떨어지는 선동.

선동 어... 어떻게...

리나 원치 않은 관계였어. 날...

선동 내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 내 아이가... 내 아이가...

혼자서 괴로워하는 선동.

리나 (천기사를 가리키며) 저 자식이 날 강제로 강간한 거란 말이야.

순간 오리고기 집에 있는 사람들은 천기사를 짐승처럼 쳐다본다.

천기사 아니 미스 김! 강간이라니? 이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김리나 약 탄 술 마시게 한 다음에 범한 게 강간 아니고 뭐야?
천기사 하하... 아니 미스김 지금 뭔가 큰 오해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유선동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횡설수설하는 선동.
그와 동시에 리나가 갑작스레 진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쓰러진다.

김리나 아... 아아아!!

83. 종합병원 복도

힘차게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는 간호사.

간호사 김리나씨 보호자 되시는 분!!
선동, 천기사 (일제히) 예!!

병원 복도의자에 떨어져 앉아 있던 선동과 천기사는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난다.
서로 눈이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84. 산부인과 원장실

산부인과 의사 앞에 선동과 천기사가 나란히 앉아 있다.

의사 임신기간 중에는 스트레스에 매우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유산의 가
 능성이 스트레스인 경우가 많거든요. 가급적 산모를 편안하게 해 주
 시고...
선동 저기 선생님...
의사 예?

85. 리나의 병실

리나가 병실 침대에 누워있고 그 주위를 선동과 천기사, 의사가 둘러싸고 있다.

의사 확인은 매우 빠릅니다. 24시간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깐요.
문제는 태아의 경우 1~3 퍼센트 유산확률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아래에 있는 동의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보이는 천기사, 리나 그리고 선동의 얼굴.
천기사가 제일 먼저 태아친자확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

리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선동
리나 죽음의 위험을 아이에게 가할 만큼? 만약 유산하기라도 하면 어쩔 건데?
선동 난 꼭 알아야 해.
리나 아니라면 어쩔 거야?
선동
리나 누구의 아이인가가 그렇게 중요해? 오빠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오빠 아이라고.
선동 미안해. 난 반드시 아빠여야만 해.
리나 (쓱쓱히 웃으며) 난 또 이렇게 버림받게 될지 모르겠네.

시간경과.

병원침대에 누운 리나는 눈을 감고 있다.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선동.
가만히 손을 뻗어 조심스레 그녀의 배를 만지려 한다.
그런데 그때 뱃속에서 아기울음소리가 들린다.
선동은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진다.
점점 커지는 아기울음소리.
겉떡은 얼굴이 되어 병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선동.

86. 병원 복도

허겁지겁 병원 복도를 달리는 선동.
그런데 신생아실로 잘 못 들어선다.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자
사색이 되어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는 선동.
정문 밖으로 나가려하지만

의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선동 네.

의사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유선동씨는...

선동의 이마에서 흐르는 식은땀.

의사 김리나씨 아이의 아버지가...

선동의 침이 꼴깍 넘어간다.

의사 아닙니다.

충격적인 결과에 넋이 나가버린 선동.

의사 유감이네요.

90. 리나의 병실 앞

힘없이 걸음을 옮기는 선동.

그의 바로 마주 편에 천기사가 행복한 얼굴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치자 잠시 자리에 멈춰서 있다.

하지만 이내 천기사는 리나의 병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천기사 (환하게 웃으며) 아빠가 왔다!

병실에 누운 리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배를 만지작거리는 천기사.

선동은 병실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병실을 지나친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리나.

선동은 그대로 병원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91. 병원 남자화장실

소변기에서 오줌을 누는 선동.

오줌발이 소변기 밖으로 튀는 게 재발한다.

마침 남자화장실에 있던 청소부아줌마가

청소를 하다가 짜증나는 얼굴로 그 현장을 지켜본다.

92. 선동의 집 거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껍뻍 지르며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던지고 때려 부수는 선동.

선동 으아악! 으악! 으아아악!

한참을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바닥에 쓰러지는 선동.
숨을 쉰 채 대다가 거실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예전에 목 잘린 바퀴벌레이다.
몇 차례 건드려보지만 완전히 죽은 듯 아무런 반응이 없다.

선동 흐흑... 흐허헉....

목 잘린 바퀴벌레가 죽은 것을 본 선동은
갑자기 끼이끼이 소리 내어 울기 시작한다.

93. 경찰서 휴게실

선동의 앞에 앉은 태호.

태호 : 예상했던 것 보다 많이 늦으셨네. 제가 뭐했어요? 삶이란 가혹함의
연속이라서 한번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란 불
가능이에요. 불가능! 어떻게 보면 담배 끊는 것 보다 더 힘든 일이
바로 이 자살이죠.

선동 죽고 싶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죽여주세요.

태호 좋습니다. 특별히 제가 직접 바로 끝내드리죠. 갑시다.

94. 자살주식회사 건물 옥상

자살점프대 위에 거침없이 올라서는 선동.
주저 없이 버튼을 누르는 태호.
한강 쪽으로 높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선동.
이내 한강 물에 풍덩 빠진다.

물에 빠진 선동.

그런데 몸이 저절로 물에 부웅 뜬다.
선동은 의아해하는 표정이 된다.
스스로 물에 가라앉으려고 시도해본다.

95. 한강 둔치

실종자를 수색중인 여러 경찰과 긴급구조대의 모습.
그 중에 경찰복을 입은 태호의 모습도 보인다.
어서 선동의 시신을 찾길 바라는지 두리번두리번 거린다.
그런데 바로 그때 태호의 등 뒤로 누군가가 스욱 나타난다.
누군가는 다름 아닌 유선동이다.

선동 선생님, 저 여기 있습니다.
태호 으어어헉!!

선동을 보는 순간 놀라서 뒤로 나자빠져 한강 물에 푹덩 빠지고 마는 태호.

96. 자살주식회사 9번방

이젠 선동에게 소리 지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태호.

태호 (혼잣말로 중얼대며) 아니 뭐 이딴 게 다 있어?
선동 수영을 배워서 그런지 도무지 물에 가라앉질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태호 그딴 걸 지금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 했어. 너랑 더 이상 얘기할 힘도 없어. 긴 말 필요 없고 그냥 살아. 살 운명이야. 쪽 살고 앞으로 절대 찾아오지 마. 어서 집에 가!! 새끼야!!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 두 명이 선동을 강제로 끌어낸다.

선동 선생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어떡하라고요. 네에? 선생님!!

선동은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힘에 부쳐 보인다.
태호는 선동을 모른 척 외면한다.

97. 선동의 집 안방

혼자 덩그러니 더블 침대에 누워 DVD PLAYER로 성인DVD를 감상하는 선동.
포르노배우들의 신음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자위를 시도한다.
매우 절박한 표정으로 격렬하게 자위를 하다가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신경질을 낸다.

98. 자살주식회사 9번방

선동은 휘발유 통으로 건장한 사내들을 물리치고
태호가 있는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안에는 태호가 다른 고객들과 상담 중이다.

선동 (휘발유에 라이터 불을 붙이려하며) 나 좀 살려줘!! 제발!!
태호 뭐야?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휘발유 통을 보더니 놀라서) 허억...
사내1 진정하세요.
선동 그러니깐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줘워어!!
태호 진... 진정해. 잘못 이러단 우리 다 죽어.

시간경과.

결국 태호와 테이블에 마주 앉은 선동.

태호 너 뭐야? 미스 김 사건 이후로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아니 자살이
애들 장난이야? 죽여 놓으면 살아나고 죽여 놓으면 또 살아나고 도
대체 이게 몇 번째냐고? 응? 그래. 이번엔 또 왜 찾아왔어?
선동 (주먹 쥐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태호 (괴성을 지르며) 으아아악!! 비뇨기과로 가!! 당장 비뇨기과로 가란
말이야!!

99. 거리

인파가 쏟아지는 어느 거리를 비틀비틀 걷는 선동.
눈엔 초점이 없어 흐리멍덩한 얼굴이다.
저 멀리 희미하게 비뇨기과 간판이 보인다.
누군가가 뒤에서 선동의 팔을 붙잡는다.

누군가 선생님!! 헌혈 좀 하고 가세요!!

선동 정신 나간 얼굴로 누군가를 쳐다본다.
누군가는 바로 남규정이다.

100. 헌혈의 집 버스 안

헌혈을 하기 전 몇 가지 검사를 준비하는 규정.

규정 잘 지내셨어요?

선동 죽지 못해 살아있죠. 부끄럽네요. 규정씨 앞에서...

잠시 둘 사이에 흐르는 정적.

규정 혹시 천기사 아저씨 죽은 거 아세요?

선동 (놀라며) 죽었어요?

규정 모르셨구나.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기뻐서 매일 과음만 하다가 그만...

선동 리나씨는... 리나씨는 잘 지내요?

규정 그건 저도 전혀 들은 사실이 없어서... 천기사 아저씨 죽고 난 뒤로 종적을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선동 혹시나 소식 듣는 게 생기면 제게 줘...

규정 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웃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인생 같잖아요. 그러니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밖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깐 선동씨도 힘내서 꼭 사세요.

선동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선동.

이내 헌혈을 위한 검사결과가 나온 듯 하다.

그런데 규정의 표정이 좋지 못하다.

규정 저기 유선생님!!

선동 네?

규정 아니 그게... 몸이 좀 이상하신 것 같은데요.

101. 종합병원 원장실

의사와 마주 앉은 선동.

의사 너무 뜬금없고 갑작스럽게 알게 되어서 수궁하기도 힘들 거고 충격도 많이 크실 겁니다. 원래 병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선동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의사 그건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운이 좋다면 몇 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의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서 속히 입원치료를 받으시는 편이...

선동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네요.

의사 그러니 어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선택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

선동은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마냥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선동 그거 정말 잘 된 일이네요.

의사 네에?

황당해 하는 의사.

102. 선동의 병실

의사와 간호사가 선동의 팔다리를 꼭 붙잡은 채로 큰 주사기를 그의 몸에 꼽는다. 선동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친다.

선동 아아악!! 제발 어서 나를 죽여 달란 말이야!! 어서!! 으아악!!

고통스런 치료가 끝난 후 멍한 표정으로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선동. 입에는 게거품이,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선동의 배꼽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튀어나온다.

그것을 잡으려는 선동.

그런데 이내 바퀴벌레가 선동의 온 몸을 뒤덮어 살을 갉아먹는다.

선동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의사와 간호사가 달려와 주사를 놓으면 아주 잠깐 현실로 돌아온다.

힘겹게 상체를 세우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선동.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103. 자살주식회사 9번방

환자복을 입은 선동.

그리고 그의 정면에 마주 앉은 태호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다.

태호 음... 지금의 표정은 뭐랄까? 죽음의 극치라고 할까... 제가 여태껏 보아 온 고객들의 표정 중 가장 완벽합니다.

선동 치료가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병으로 죽느니 차라리 자살하겠습니다.

태호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드려야죠. 당신도 죽는 병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자꾸 생각만 해도 상황이 웃기네요. 하하하...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즐거워하는 태호.

104. 자살주식회사 접수부

암울한 표정으로 자살주식회사를 나가려하는 선동.

문득 고개를 돌려 대형디지털전광판을 바라본다.

선동의 이름이 자살대기자 명단에 뜬다.

그런데 자신보다 위쪽에 김리나의 이름도

자살대기자 명단에 올라간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선동.

황급히 접수부에 있는 여자안내원에게 가서 묻는다.

유선동 저기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안내원 말씀하세요.

유선동 여기 김리나라고 자살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누군지 확인 좀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안내원 개인 신상은 철저히 비공개로 부칩니다. 죄송하지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선동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안내원 (선동을 무시하고 다음 손님에게 인사하며)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유선동 저기 잠깐만요.

선동이 안내원이 있는 안쪽으로 침입하려고 하자

내부를 지키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로부터 제지를 당한다.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나갈 수 밖에 없는 선동.

105. 헌혈의 집 버스 안

황급히 헌혈의 집 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선동.
안에 있던 규정과 서로 눈이 마주친다.

헌혈의 집 버스 안에 있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 중인 규정과 선동.
자살주식회사 사이트에서 관리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규정.
관리자 메뉴로 들어가 자살대기자의 명단을 확인한다.
끝없는 자살대기자 명단 들 중 김리나의 이름을 발견, 클릭한다.
그러자 선동이 알고 있는 김리나의 얼굴이 뜬다.
그녀의 자살정도 (장소와 시간 등등)이 자세하게 나타난다.
반사적으로 시계를 보고 시간을 확인하는 선동과 규정. 표정이 다급해진다.
곧바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선동.

규정 (달리는 선동의 등 뒤에 대고 크게 소리치며) 유선생님!! 꼭 살아서 돌아오십시오.

106. 도로

차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데 선동이 탄 택시는 도무지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수많은 차들로 정체된 도로.
연신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택시에서 내려 정지된 차량들 셋길로 힘차게 달린다.

107. 자살주식회사 건물 옥상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리는 선동의 표정.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린다.
이제 막 옥상으로 거의 다 올라온 선동.
한편, 자살을 준비 중인 리나.
그런데 그녀는 이미 만삭인 몸이다.
슬픈 얼굴로 자신의 배를 쓰다듬는 그녀.

리나 엄마를 용서해 줘.

선동이 막 옥상을 올라오는 순간

선동 리나야!! 안 돼!! 안~돼~에!!

그러나 이미 공중으로 부웅 날아오르는 리나.
뒤늦게 도착한 선동은 마구 소리를 지른다.

선동 아아아아!!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보는 선동.
저 멀리 하늘 끝까지 날아오르는 리나의 육체.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는 새로운 얼굴의 자살도우미.
순간 획하며 고개를 돌려 자살도우미를 쳐다보는 선동.
강렬한 눈빛에 흠칫 놀래하는 자살도우미.

108. 공중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중인 리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있다.
바로 그때 아래에서 점점 크게 들려오는 고향.

??? 김리나아아~!

뜬금없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뜨고
뒤로 고개를 돌려보는 리나.
선동이 아래에서 날아오르고 있다. 속력이 빨라 곧 그녀를 따라잡을 기세다.

선동 안돼에!
리나 넌 뭐야!
선동 살아. 무조건 살아.
리나 뭘 상관이야. 이 나쁜 놈아~!
선동 리나야 사랑해!
리나 그딴 거 이제 안 통해!!
선동 자긴 죽기엔 너무 아름답고 젊잖아.

리나 됐거든~!
선동 난 어차피 죽은 목숨이니깐 당신만은 살아야 해.

하늘로 끝없이 날아오르던 두 사람은 마침내 정점에 다다랐는지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하늘로 솟구쳤을 때와는 달리 추락할 시에는 현실적인 속도로 바뀐다.

선동 왜냐하면 난 죽을...

선동은 리나에게 중요한 한마디를 다 하지도 못한 채 한강 물에 푹땡 빠진다.
재빠르게 물 위로 솟구쳐 오른 선동은
리나의 이름을 부르며 잠수를 해가며 그녀를 찾아 헤맨다.
이윽고 의식을 잃은 리나를 안고 물 밖으로 나오는 선동.
둘의 모습은 마치 한강이라는 거대한 자궁 속에서 태어나는 아기 같다.

109. 한강 둔치 잔디

숨을 쉬지 않는 리나.
정신없이 인공호흡을 하는 선동.
그러나 그녀는 깨어나지 않고 결국 눈물이 쏟아진다.

선동 리나야... 리나야... 호호호...

선동은 원통한 나머지 주먹으로 리나의 가슴을 때리는데
순간 기적적으로 물을 다 토해내며 정신을 차리는 리나.
선동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하지만 리나는,

리나 왜 살렸어!! 죽을 거야!!

다시 한강물에 뛰어들어 죽으려한다.
극구 그녀를 붙잡아 말리는 선동.

선동 안 돼.
리나 이거 놔!! 놓으란 말이야!!
선동 안 돼 안 돼!!
리나 넌 네 맘대로 다 하면서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이거 놓으라고!

선동 난 죽을병에 걸렸단 말이야!

선동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래하는 리나.

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선동 죽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죽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깐 난 자살해도
괜찮은데 자기는 안 돼. 나 때문이니깐 더더욱 안 돼.

리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선동 어떻게든 난 죽을 운명이었나 봐.

리나 (눈물을 글썽이며) 얼마나 살 수 있데?

선동 언제 죽을 진 의사도 모른데.

리나 (애써 웃음 지으며) 그럼 됐네.

선동

리나 어느 누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

리나의 위로에 어려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선동.

리나는 그런 그가 가여운 지 불을 쓰다듬어준다.

선동 어서 돌아가자.

선동은 리나를 부축해 일으켜 세운다.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리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진다.

그녀는 배에 진통을 호소한다.

리나 아아아! 아아악!

선동 왜... 왜 그래! 자기야! 자기야!

리나 나... 나올 것 같아. 아아악!

선동 (당황해하며) 뭐?

선동은 어서 리나를 업고 달리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등을 밀치며 다시 바닥에 쓰러진다.

리나 안... 돼! 아아악! 안 돼!

선동 저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아기가...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근처에 있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모두들 겁을 먹고 가까이 다가올 엄두도 내지 못한다.
어느 한 시민은 119에 급히 전화를 건다.

선동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봐. 자기야.
리나 못 참... 쟤어. 아아악! 어떡해! 아아아!

리나의 자궁에서 아기의 머리가 막 나오는 모습이 보인다.
선동은 본능적으로 두 팔을 벌려 아기를 받으려한다.
탯줄이 붙어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 올려 품에 얹는 선동.

아기 응애! 응애응애!

한 생명의 탄생과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왈각 울음을 터트리고 마는 선동.

선동 으호호... 호호...
아기 응애응애! 응애응애!
선동 으허헝! 어어영! 영영영!

갓난아기와 함께, 갓난아기처럼 우는 선동.
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리나.

선동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흐허영!

지난날을 참회하는 선동.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온다.

110. 선동의 집 안방, 저녁

선동과 리나는 다정히 더블침대에 누워 TV연속극 마지막 편을 보는 중이다.
이내 드라마가 끝나고 새로운 드라마 예고편이 나온다.

선동 새로 시작하는 거 정말 재미있겠다.
리나 응. 전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 같아.
선동 이거 벌써부터 기대되는데?

TV채널이 돌아간다.

이제 코미디 프로를 보는 선동과 리나.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재미난 지 서로 배꼽을 잡고 침대에서 데구루루 구른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방에서 아기울음소리가 들린다.

선동은 리나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는데 그녀는 어느새 자는 척을 한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선동.

그가 방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눈을 뜨고 코미디프로를 보며 해맑게 웃는 리나.

이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친다.

그런데 옆방에 들어간 선동이 리나를 큰 목소리로 부른다.

선동 자기야. 잠깐만 이리와 봐.

리나 왜? 무슨 일인데?

선동 빨리 와 봐. 빨리! 큰일 났어!

리나는 깜짝 놀라하며 방에서 뛰쳐나간다.

111. 아기방

리나 뭐야? 뭐? 뭔데?

한걸음에 달려온 리나를 보며 환하게 웃는 선동.

그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있다.

리나 뭐야? 장난친 거야?

선동 아니야. 자, 이거 봐봐.

선동은 아기와 지그시 눈을 마주본다.

선동 아빠 해 봐. 아빠! 아빠!

리나 말도 안 돼.

아기 뽀뽀! 뽀뽀!

리나 어머!

아기가 말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리나.

선동 (리나를 가리키며) 엄마 해 봐! 엄마! 엄마!

아기 빠빠! 빠빠!

살짝 빠진 리나.

선동 아니 빠빠가 아니라 엄마! 엄마!
아기 맘마! 맘마!

환하게 웃는 선동과 리나.

112. 야외 언덕

잔디가 깔린 어느 낮은 언덕의 큰 나무 그늘 아래
선동이 리나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다.
그들 바로 앞으로 5세가량의 꼬마아이가
민들레꽃을 꺾어 씨를 입으로 후 불며 좋아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선동과 리나.
좀 더 뒤로 물러나보면 그 아이 외에도 수많은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어느 유치원에서 소풍이라도 나온 듯 하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민들레씨를 불며 장난을 친다.
그 광경을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던 리나는
문득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누운 선동을 내려다본다.
어느새 눈을 감은 선동.

리나 자?
선동

선동의 얼굴이 평안해 보인다. 공중에는 온통 민들레씨가 흩날린다.
엔딩크레딧이 올라간다.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며 화면분할이 되어 병원장면이 나온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선동.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의사 거 참 이상하네. 왜 안 죽지? 죽을 때가 훨씬 지났는데... 죽어야 되는데...

선동은 곁에 있는 리나를 보며 빙긋 웃는다.
그녀도 따라서 웃는다.

-끝-